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학년도 2월

체육교육 석사학위논문

축구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박 성 화

축구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Management  
Strategy on Sports Attributions among Soccer Players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박 성 화

축구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홍 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박 성 화

박성화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명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안용덕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홍남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모형 .....	6
4. 연구가설 .....	6
5. 용어정의 .....	8
II. 이론적 배경 .....	10
1. 성취목표성향의 이해 .....	10
1) 목표의 정의 .....	10
2) 성취목표성향의 정의 .....	11
3) 성취목표성향의 구성요인 .....	12
2. 자기관리 전략의 이해 .....	15
1) 자기관리의 정의 .....	15
2) 자기관리의 모델 .....	15
3) 자기관리의 구성요인 .....	19
(1) 몸관리 .....	20
(2) 정신관리 .....	20
(3) 훈련관리 .....	20
(4) 대인관리 .....	20
3. 스포츠 귀인의 이해 .....	21
1) 귀인의 정의 .....	21
2) 스포츠 귀인의 정의 .....	22
4. 선행연구 .....	25

III. 연구방법 .....	32
1. 연구대상 .....	33
2. 조사도구 .....	34
3.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	37
4. 자료처리 .....	43
IV. 결과 및 논의 .....	45
1. 결과 .....	45
2. 논의 .....	72
V. 결론 및 제언 .....	78
1. 결론 .....	78
2. 제언 .....	81
참고문헌 .....	82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4
표 2. 설문지의 구성 .....	35
표 3. 성취목표성향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	38
표 4. 자기관리 전략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	39
표 5. 성공귀인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	41
표 6. 실패귀인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	43
표 7. 설문지 구성의 통계기법 .....	44
표 8.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	45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	46
표 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전략의 차이 .....	48
표 1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귀인의 차이 .....	50
표 1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실패귀인의 차이 .....	52
표 13.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	53
표 14.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	54
표 15.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 .....	55
표 16.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 .....	56
표 17.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	57
표 18.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	58
표 19.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 ·	59
표 20.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 .....	60
표 21.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 .....	61
표 22.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	62
표 23.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	63
표 24.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 .....	64

표 25.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	65
표 26.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워크부족에 미치는 영향	67
표 27.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68
표 28.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	69
표 29.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	70
표 30.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71

## 그림목자

그림 1.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전략, 스포츠 귀인의 연구모형	6
그림 2. 심리적 기술과 방법의 구분	16
그림 3. 수행단계에 따른 자기조절 전략	17
그림 4. 한국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개념 모형	18

## ABSTRACT

###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Management Strategy on Sports Attributions among Soccer Players

Park Sung-hwa

Advisor Prof. Kim Hong-nam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build a hypothetical model for causal relations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management strategy and sports attributions(success and failure attributions) and empirically demonstrate them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experiential researches on male and female soccer players conducted in the fields of sport science, sociology, and psychology. The sampling procedure involved the selection of six teams including two high school, college, and professional teams each among the ones registered at the homepage of Korea Football Association(<http://www.kfa.or.kr>).

The study sampled total 400 players with 54 extracted from each of the six teams. After data screening to check insincere answers, double answers, and outliers, the cases of total 346 players were used in analysis. Specific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employed in the study includ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simple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1. Findings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Strategy, and Sports Attribution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gender reveal some difference in task orient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ego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team.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self-management strategy according to gender show differences in mind, body, interpersonal, and training manageme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mind and bod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team.

Third,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success attributions according to gender and the team indicat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mental power, teamwork, luck, and analysis of the oppon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tal power and teamwork according to the position. Mental power and luck turned out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according to the player career.

Fourth, the analysis results of differences in failure attributions reveal statistical differences in mental power deterioration and psychological burden according to gender and som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burden according to the team. The study also tested differences in failure attributions according to the position and player career and found that lack of teamwork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 2.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ports Attributions(Success and Failure Attributions)

First, task orientation, one of the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l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tal power, teamwork, and luck.

Second, ego and task orientation,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nalysis of the opponent.

Third, ego and task orientation,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lack of teamwork and mental power deterioration. Task orientation also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conceit and psychological burden.

### 3.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Strategy on Sports Attributions (Success and Failure Attribution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effects of self-management strategy on success attributions show that mind and body management, subfactors of self-management strateg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mental power, that body and interpersonal management did on teamwork and luck, and that mind, body, and training management did on analysis of the opponent.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f effects of self-management strategy on failure attributions reveal that mind management, one of the subfactors of self-management strateg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lack of teamwork, that interpersonal management did on mental power deterioration and poor condition, that mind and interpersonal management did on conceit, and that mind management did on psychological burden.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스포츠는 경쟁의 결과로 승리와 패배를 불러일으키는 본질적 특징이 갖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는 경쟁뿐만 아니라 기능획득을 목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현숙희, 2006).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 이전 인간의 움직임을 부호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고안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으로 지속되어 왔다(Hughes & Franks, 2004). 우리나라에서의 축구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적 분석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재곤, 2012).

축구경기는 90분 동안 가장 넓은 경기장을 배경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팀의 전술과 선수의 개인기술로 득점을 얻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상대의 조직을 끊임없이 파괴하려는 고도화된 경기종목이다(하성일, 2004). 축구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경기운용이 팀의 경기 흐름을 결정하고 이러한 경기흐름이 다시 개개인의 경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날로그 방식의 흐름 중심 경기이다. 따라서 흐름의 연속성은 중요하며 흐름이 깨지는 순간 축구에서 중시되는 균형을 잃게 된다. 이러한 흐름의 인식은 축구선수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행동적으로 발현되며, 문제를 경기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시키는 기제가 결국 흐름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축구 경기에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한다면 경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임용혁, 2006).

특히,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기능 향상 뿐만 아니라 부정적 심리요소를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량을 지속적으

로 습득할 수 있도록 신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시합 전, 시합 중, 시합 후에 필요한 적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경기를 수행하는데 있다(박성진, 2007).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물론이며, 운동선수, 감독, 코치, 팀의 관계자들은 운동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자 다양한 훈련방법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생리적, 역학적, 심리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동등한 수준의 운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선수들의 경기력에서는 신체적 기술보다는 정신적 기술의 차이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설정득, 2001, 재인용 pp. 146).

최근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심리적 요인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중재변인 및 관련변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정용각, 1997; 배영훈, 2004; 김찬주, 2005), 스포츠 심리학은 이론적,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동기와 성취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상황에서 행동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하여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성취목표가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Duda, 1993; Dweck, 1986; Nicholls, 1984, 1992).

스포츠 현장에서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성취동기에 기초를 둔 목표성향을 개념화 한 것으로(Roberts, 1992), 이는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분이 무엇이며, 자신의 능력유무를 판단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배영훈, 2004)를 스포츠 경기상황에서 살펴볼 때,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결과와 실패적인 결과는 선수개인의 성취효과의 해석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으로 조명할 수 있다(Duda & Nicholls, 1989; 김성은, 2005).

Ames(1992)는 성취행동의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신념과 귀인의 형태로 통합되었고, 행동의 의도를 발산하게 되는 영향을 주었으며, 성취행동유형에 접근하여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표출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으로 전제되며, 성공은 개인적인 성격 혹은 단순한 목표 자체의 기능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오정묵, 2008).

그러므로 성취목표성향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현장이나 교육현장과 같은 다른 성취맥락과 가장 빈번하게 학습에서 사용되어 교육현장에서 성취동기를 이해하는 유력한 접근방법이다(Elliott & Harackiewicz, 1996).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동수행의 태도와 수행이 달라지며 이는 운동수행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목표와 개인차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성취목표성향은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표성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Duda & Newton, 1990).

Nicholls(1984)은 성취목표를 두 가지 목표성향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정의하고 있으며,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으로 구분되며, 과제목표성향은 주관적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습경험이나 과제수행의 만족도 혹은 개인적 기술의 향상 정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성취행동의 성공여부를 평가한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은 타인과 비교를 통하여,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성이 증명되거나 타인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특성을 갖는다(허정훈, 2004; 최완욱, 2012 재인용).

한편, 스포츠 현장에서는 최소 50%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스포츠 현장에서 성공적인 경기수행을 위해서는 운동선수의 개인 내적, 외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는 단순히 과학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자신을 관리하느냐가 경기력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 개개인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설정에서부터 달성까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있어 자기관리는 개인 내적, 외적, 환경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주제이며, 심리적, 행동적 전략의 하나로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면 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철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유진, 1996; 허정훈, 2004).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허정훈, 김병준, 유진(2001)은 운동선수들이 자기관리를 어떤 요인의 구조로 하고 있는가를 개방형 자료조사로서 귀납적으로 탐색한 결과, 몸 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 요인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허정훈(2002)은 신체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의 4개 영역의 자기 관리 요인을 구조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각 집단별 프로파일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심리기술, 정신력과의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사회적 요인, 고유한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기관리는 운동선수 및 지도자 모두에게 목표설정, 의지력 등과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기관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엄성호, 2003).

끝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 요인으로 스포츠나 운동 상황에서 운동선수의 행동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스포츠 귀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귀인이론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귀인이론은 인간행동의 원인과 방향 및 강도 그리고 행동의 지속력을 설명하려는 동기이론 중 하나로서,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작용한 원인을 탐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관찰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내적동기, 타인의 도움, 운 등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려는 이론적 체계이다(김성옥, 2001).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귀인이론은 Heider(1958), Jones & Davis(1965), Kelley(1967)로 이어지면서 Weiner(1985)는 동기이론으로 체계화 하였으며, 그는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 등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승자와 패자의 귀인유형 차이를 연구하였다(Biddle & Hill, 1992; McAuley & Duncan, 1989; Rethorst, 1992). 지금까지 보고된 귀인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승패에 따른 귀인유형(Weiner, Frieze, Kulka, Reed, Rest, & Rosenbaum, 1971; Weiner, Russell, & Lerman, 1978; Dweck, 1975; Dweck & Reppucci, 1973), 성취동기와 목표에 따른 귀인 유형(Roberts, 1982; Scanlan & Ragan, 1978; Yukelson, Weinberg, West & Jackson, 1981), 자존심에 따른 귀인유형(Sonstroem, 1984; Sonstroem & Morgan, 1989) 등으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다른 변인들과 귀인이론에 적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까지 국내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귀인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최종인, 2000; 임종은, 2002; 이상기, 2001; 김응수, 2001; 이제홍, 임종은, 2001; 황준팔, 2001; 김원배, 윤영길, 2003; 안희구, 2003; 홍재표, 차정훈, 전승훈, 2005; 천길영, 전기영, 2003; 홍재표, 2003; 김주희, 2004; 배영훈, 2004; 구본칠, 김찬주, 2005; 김한별, 2006; 이경원, 2006; 현숙희, 2006; 안주미, 2006; 이지훈, 2007; 장재근, 2008; 최무현, 김신호, 2009; 안주미, 여인성, 2010; 송민규, 2011; 윤인상, 2011; 이민, 2012; 정찬영, 2012) 등은 귀인 이론을 적용한 연구이며, 이러한 선행연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의 경기결과의 원인은 무엇으로 지각하느냐에 대한 스포츠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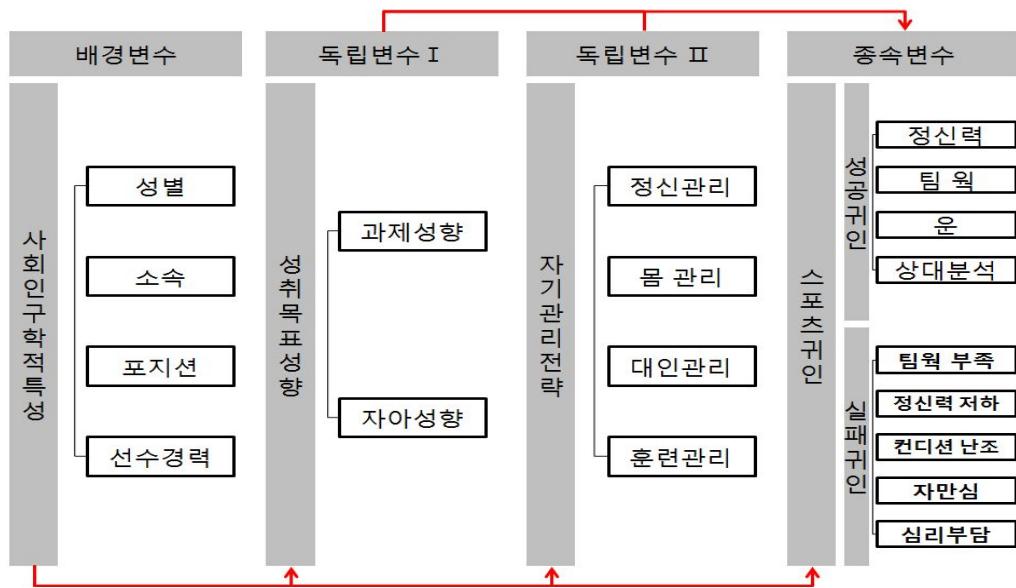
따라서, 한국 축구선수의 성적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는 연구로서 국내 우수한 선수의 과학적인 경기분석과 기술개발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축구의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축구 선수들의 성공적인 경기결과에 대한 원인과 실패적인 경기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 축구 지도자의 지도력의 효율성과 축구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축구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성취목표성향과 자기 관리 전략이 성패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반적 특성으로 축구선수의 성별, 소속, 포지션, 선수경력, 입장 경력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전략, 성패귀인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축구 지도자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축구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전략, 성패귀인의 연구모형

### 4. 연구가설

축구 선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및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의 차이를 규명하며,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 및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기관리전략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1.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2.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3.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4.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5. 성취목표성향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6. 성취목표성향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7. 성취목표성향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8. 성취목표성향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9. 성취목표성향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 자기관리전략은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1. 자기관리전략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2. 자기관리전략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3. 자기관리전략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4. 자기관리전략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5. 자기관리전략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6. 자기관리전략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7. 자기관리전략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8. 자기관리전략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9. 자기관리전략은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용어의 정의

### 1) 성취목표성향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성취목표성향의 조작적 정의는 개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개념으로 성취상황에서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성공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지배적으로 채택하게 되며, 개인의 성취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에서 기본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한국스포츠 심리학회, 2005), 성취목표성향을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으로 구분하였다.

## 2) 자기관리 전략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관리의 조작적 정의는 개인 내적, 외적, 환경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주제이며, 심리 행동적 전략의 하나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면 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철저해 지는 것을 의미하며(유진, 1996).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은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몸 관리 등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3) 스포츠 귀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성패귀인의 조작적 정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이며 성취동기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다. 기존 귀인척도는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 등 4가지 귀인을 사용한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의 스포츠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김원배, 윤영길(2003)의 한국형 스포츠 귀인척도인 성공귀인척도(상대분석, 정신력, 지도력, 운, 팀웍, 노력, 컨디션)와 실패귀인척도(자만심, 팀웍, 심리적 부담감, 컨디션, 정신력)로 구성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취목표성향의 이해

#### 1) 목표의 정의

목표(goal)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도달하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목표(goal)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위의 목표(aim) 또는 목적(object)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목표설정 연구에서 목표라는 용어는 과제 수행 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specific standard)이 무엇이며, 이는 제한된 시간내에 달성할 수 있는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Weinberg, 1992). Locke(1981)은 목표를 개인이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목적(aim)이나 활동대상이라고 정의하고, 그 개념에 있어서는 목적(purpose)이나 의도(intention)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목표설정 이론(goal setting theory)을 최초로 체계화한 Locke, Shaw, Sarri, & Latham(1981)에 따르면 목표의 개념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목표란 장차 얻고자 해서 바라고 있는 상태, 즉 개인이나 조직이 장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이며, 둘째는 과거나 현재의 의사결정과 행동개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현재나 미래의 행동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다(Cyert & March, 1983; Simon, 1964). 이러한 측면에서 Ames(1984)는 특정한 성취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달과 획득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라고 밝히고 있으며, Duda & Nicholls(1989)는 성취목표성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자신의 능력유무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Locke, Shaw, Sarri, & Latham(1981)은 목표에는 내용(Conetent)과 강도(intensity)의 측면에서 두 가지의 중요

한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목표의 내용은 스포츠 현장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의미하며, 목표의 강도는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냐를 의미한다(Buton, 1993 ; 오정묵, 2008 ; 추수진, 2011 재인용). 따라서 목표의 주요기능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지어 주는 것으로 목표가 수행에 영향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목표를 인식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수행에 참여한 수행자들이 분명히 목표를 필요한 행동들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과는 달리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지각하는 정도나 개념의 차이를 반영하는 성취목표성향 이론가들(Maehr & Nicholls, 1980; Dweck, 1986; Elliott & Dweck, 1988; Nicholls, 1984)은 목표를 구체적인 시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과제의 수행능력 수준 혹은 성취를 의미하며, 개인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동기에 기초를 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 2) 성취목표성향의 정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시간 내에 달성하려고 나름의 방식대로 노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성취목표성향은 인간에게 있어 일반적 목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달성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스포츠심리학회, 1998; 추수진, 2011). 성취목표성향 이론가들(Maehr & Nicholls, 1980; Dweck, 1986; Elliott & Dweck, 1988; Nicholls, 1984)은 목표를 구체적인 시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과제의 수행능력 수준 혹은 성취를 의미하며, 개인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동기에 기초를 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성취목표성향 이론에서 승패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으로 전제되고, 성공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성격 혹은 단순히 목표자체의 기능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목표차이에 기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오정묵, 2008). Roberts(1992)는 스포츠 상황에서 이런 목표를 숙련성과 경쟁성으로 명칭하고 이러한 목표들은 상호 직교적이며, 스포츠 유능성 수준

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스포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목표는 유능성 또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성취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두 개의 주요 목표측면을 유도하였고, 이 목표들은 각각 다양하게 명칭 되어지고 있다. 이는 과제와 자아, 학습과 수행, 숙련과 능력집중의 개념으로 학습, 과제, 숙련목표들은 유사하며, 자아, 수행, 능력목표 또한 동의어로 보여진다(김성준, 2012). 따라서,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나 현장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운동학습자들이 운동학습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동수행자의 태도와 수행이 달라지며 이는 운동수행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3) 성취목표성향의 구성요인

성취목표성향 이론에서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에서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으로 전제되며, 성공은 개인적으로 성격 혹은 단순한 목표 자체의 기능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차이에 기인된다고 가정하고 있다(오정묵, 2008). 특히,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학습자들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운동수행자의 태도와 수행이 달라지며, 이는 운동수행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성취목표성향은 과제목표성향(task oriented goal)과 자아목표성향(ego oriented goal)으로 구분하고 있다(Duda, Chi, & Newton, 1990). 이러한 관점에서 과제목표성향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특정과제를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혹은 숙달했는지와 같은 개인적 숙련과 자기발전의 범주에서 정의한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은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난 승리와 패배의 범주에서 정의하며, 자신의 행위결과가 자신이 소유한 높은 능력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귀인시키는 주관적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1) 과제성향

일반적으로 과제 자체의 숙련이나 새로운 운동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과제 수행을 비교하여 진보를 강조하는 목표이다. 즉, 과제성향을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특정 과제를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 혹은 숙달하는지와 같은 개인적 숙련과 자기발전의 범주에서 정의한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적절한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다(추수진, 2011). Nicholls(1989)는 과제목표성향은 비교의 준거가 되는 기준이 자신이며, 이는 기술이 향상되거나 노력을 많이 하였을 때 유능한 느낌이 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에서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자기를 참고로 향상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박철우, 2009 ; 추수진, 2011 재인용). 성취목표성향과 운동수행의 연구결과에서도 Ames(1992)는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기술향상이나 수준에 의한 비교나 노력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는 과제성향적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2) 자아성향

자아성향은 비교의 준거가 타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 다른 선수들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잘해야 되며, 다른 선수들과 동일하게 잘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믿어 다른 선수들보다 노력을 덜 한다는 것이다(정청희, 김병준, 1999). Nicholls(1989)는 자아성향을 비교의 준거로 기준이 타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능력을 보이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즉, 능력에 대한 지각이 다른 사람과 비교된 기준으로 주관적인 자기능력을 평가하고, 능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보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배진희, 2010).

원주연, 김윤태(1998)는 자아목표성향이 스포츠 상황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며,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잘못하였을 경우에 변명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기지향적인 사람들은 남과의 비교에서 자신이 잘 보이기를 원

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과제를 선택하거나 달성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아목표지향성은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난 승리와 패배의 범주에서 정의한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의 행위 결과가 자신이 소유한 높은 능력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귀인시키는 주관적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왕성, 2007).

그러므로 목표를 개인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동기에 기초를 둔 성향으로 개념화하여 근원적인 동기의 성향이 과제목표지향성에서 출발하였다면, 목표란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적절한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며, 자아목표지향에서 출발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결과가 자신이 소유하는 높은 능력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귀인시키는 주관적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추수진, 2011).

## 2. 자기관리 전략의 이해

### 1) 자기관리의 정의

자기관리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이나 전략들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이다. 즉, 자기관리 과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스스로 환경 여건을 수정하고 행동결과를 조정하며 관리하는 것이다(Jones, Nelson, & Kazdin, 1977). 이러한 개념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통제(Thoresen & Mahoney, 1974), 자기조절(Kanfer, 1970; 1971)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고 있으며,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자기통제(self-control),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로 혼용되어져 왔다. 자기관리는 개인 내적, 외적, 환경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주제이며 심리 행동적 전략의 하나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절제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유 진, 1996),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 자기관리는 성공적인 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철저해지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김병준, 유 진, 허정훈, 2001).

### 2) 자기관리의 모델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자기관리란 자신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 진, 1996). 즉, 운동선수 자기관리는 성공적인 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철저해 지는 것을 말한다.

Weinberg & Gould(1995)는 우수선수들의 심리적 전략에 대해서 선수들은 경기 중 역경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에 임하며, 경기 중과 경기 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전력을 연습한다. 또한 당면한 수행에 완전히 집중하고 경기와 관련 없는 사건이나 생각은 배제하며, 경기 전에 정신연습을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전에 상대선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한 경기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성과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선수들이 성격적, 심리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자신감, 불안조절, 집중력 등 심리적 기술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훈련과 훈련에 대한 철저한 자세, 그리고 정신연습 혹은 대처 전략 등과 같은 개개인의 고유한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심리기술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 Vealey(1988)는 ‘수행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합에 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기술(mental skills)을 가르쳐주거나 향상시켜 주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나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Vealey(1988)는 기초기술로서 의지력,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 정신적인 측면을, 수행기술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각성을, 직접적으로 운동수행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촉진하는 기술로서 대인관계기술과 생활 관리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훈련 등을 중요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심리기술로 부르고 있는 목표설정과 심상, 이완, 사고조절 등을 심리기술 훈련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	기초기술	의지, 자각 자아존중감, 자신감	방법	기초방법	신체훈련 교육
	수행기술	최적 신체적 각성 최적 정신적 각성 최적 주의 집중			목표설정 심상
	촉진기술	대인관계기술 라이프스타일 관리		심리기술 훈련방법	신체이완 사고조절

<그림 2> 심리적 기술과 방법의 구분(Vealey,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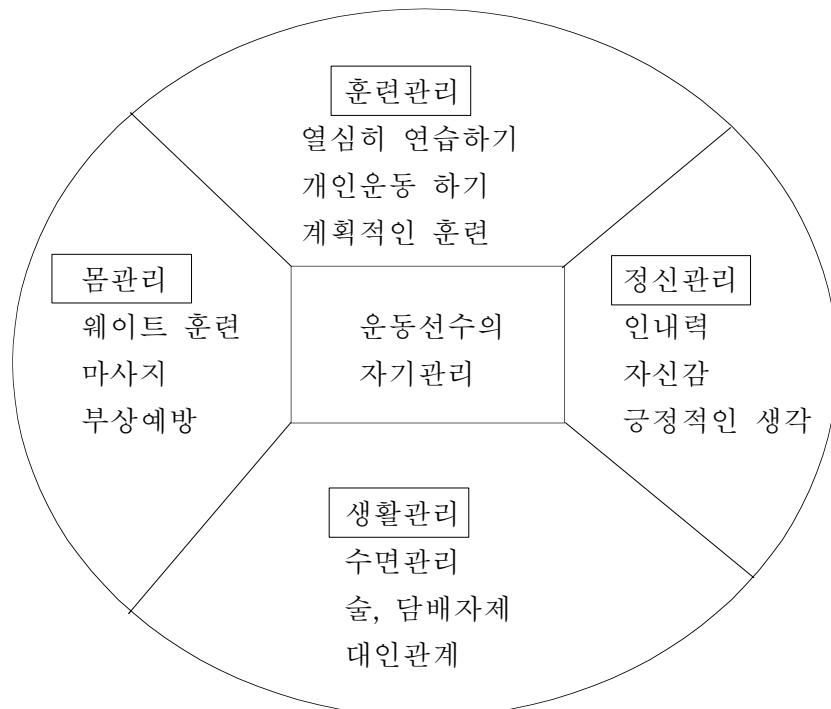
Martens(1987)도 심리기술 훈련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적인 심리기술로 심상기술(imagery skills), 심리에너지 관리(psychic energy management),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주의집중 기술(attentional skills), 목표설정기술(goal setting skills)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심리기술과 방법은 선수들의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리고 생활과 대인관계 기술에 자가관리 영역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는 이러한 3단계 조절작용을 수행 전, 수행 중, 수행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행전략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행동, 인지(계획, 목표설정), 정서(정서적 상태) 생리(신체적 조건), 환경 변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련 속에서 자기조절을 설명하고 있다.

구분	수행 전	수행 중	수행 후
행동적	1. 계약 실행 제한	1. 관습수정 신체자세	1. 관습평가 주의력 초점 유지
	2. 습관계획 먹기/자기/ 신체/정신연습	2. 자기탐지 보조유지	2. 정서적 조절 유지 자기평가
	3. 자기탐지 실행/제한/경쟁	생리적욕구	목표/통계로 비교
	1. 목표설정 수행/인지/정서/생리	1. 결합/분리	1. 목표조정
	2. 자아-집중	2. 자아탐지	2. 자아집중
	3. 독백	3. 독백	3. 독백
인지-정서	4. 시각화/심상	4. 시각화/심상	4. 시각화/심상
	5. 생체송환(무의식적인 생리심리적 반응의 의식적 통제)		
심리생리적	1. 생체송환훈련	1. 고조된 자각	1. 고조된 자각
	2. 고조된 자각		

<그림 3> 수행단계에 따른 자기조절 전략(crews, 1993)

운동선수들은 중요한 시합이 다가오면 행동적, 인지-정서적, 심리 생리적 자가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전략들은 수행의 진행단계 즉, 수행전이나 수행 중 수행 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이용한다면 성공적인 수행과 최상수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정훈(2001)은 한국의 대학 및 실업선수를 대상으로 평소 훈련과 시합 시 자기 관리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삼중 검증(triangulation)방법을 이용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림 4>과 같은 한국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개념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4>. 한국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개념 모형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운동선수들은 성공적인 선수생활과 최상의 운동수행을 위해 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의 4가지 영역에서 몸 컨디션조절,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기관리 전략이다. 훈련관리는 선수들이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규칙적인 훈련과 부족한 개인연습으로 훈련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정신관리는 평소연습과 시합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등 심리적 문제를 조절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자신감을 갖는 등의 자기관리 전략을 말한다. 생활관리는 평소 규

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술·담배 자제, 수면관리, 대인관계관리 등의 자기관리 전략을 말한다. 특히 대인관계관리는 팀 동료, 친구 등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관리 측면으로 관계 중심적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 3) 자기관리의 구성요인

스포츠 현장에서의 자기관리는 경기력과 수행의 향상을 위해서 운동선수가 자기를 통제하면서 개발 및 관리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자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Vealey(1988)는 ‘자기관리 수행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합에 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기술(mental skills)을 가르쳐주거나 향상시켜 주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나 전략’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용어는 이미지 트레이닝, 정신력 훈련, 대처전략 등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허정훈, 김병준, 유진(2001)은 한국의 대학 및 실업선수 155명을 대상으로 평소훈련 과정과 시합 시 자기관리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방법을 이용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여 한국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 모형을 탐색한 결과 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 요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허정훈(2002)은 한국 운동선수들의 일상생활과 훈련 그리고 시합에 직면하였을 때 자기 스스로 조절을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선수들은 성공적인 선수생활과 최상의 운동수행을 위해 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1) 몸관리

몸관리란 운동선수들의 경기 전, 후 및 훈련을 위한 모든 관리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체관리요인으로 컨디션 조절을 위해 스트레칭과 마사지, 부상 예방과 치료 등의 신체적인 면의 자기관리를 의미하며(허정훈, 2002), 김병준(2003)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측면에서 몸 관리 영역은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자기관리 전략으로 마사지하기, 부상 예방과 치료, 몸 컨디션 조절 등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기관리 전략이라고 제시하였다.

## (2) 정신관리

정신관리는 고도의 경쟁상황인 스포츠에서 긴장과 불안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는 등의 자기관리를 의미하며(허정훈, 2002), 김병준(2003)의 연구에서는 심리·정신적 측면에서 정신관리는 힘들고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인내력과 자신감을 갖고 평소연습과 시합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등 심리적 문제를 조절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자신감을 갖는 등의 자기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 (3) 훈련관리

훈련관리는 평소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훈련과 부족한 개인연습 등을 통하여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선수들의 훈련관리를 의미하며(허정훈, 2002), 김병준(2003)의 연구에서는 훈련관리를 연습과 시합의 구분 없이 선수들이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규칙적인 훈련과 부족한 개인연습으로 훈련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4) 대인관리

대인관리는 팀 동료, 친구, 주변 인물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나타나는 측면으로 인간관계 중심적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허정훈, 2002).

### 3. 스포츠 귀인의 이해

#### 1) 귀인의 정의

귀인(歸因, Attribution)이란 어떤 결과의 원인을 귀속시킨다는 뜻으로서, 사건 또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추론하여 어느 특정 원인에 그 현상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나 특이한 일, 즐거운 일 보다는 고통스럽고 나쁘고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결과가 생긴 이유를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다. Heider(1958)는 대인관계 심리학(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을 제안하였으며, 많은 이론가는 개인이 외적요인을 근거로 행동 또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추론(Brawley & Roberts, 1984; Freedman, Sears & Carlsmith, 1981)하여, 인간 행동의 지각된 원인과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Brawley & Roberts, 1984 ; Penrod, 1984).

귀인(attribution)은 ‘원인을 되돌리다’라는 사전적인 개념으로 인간행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건 또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추론하여 어느 특정 원인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귀인이론은 행동의 지각된 원인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에 관한 논리적인 해석을 내리는 방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Weiner, 1986). 이처럼 귀인 이론은 인간행동의 원인과 방향 및 강도 그리고 행동의 지속력을 설명하려는 동기이론 중 하나로서,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작용한 원인을 탐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관찰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내적동기, 타인의 도움, 운 등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려는 이론적 체계이다(김성옥, 2001).

## 2) 스포츠 귀인의 정의

스포츠 상황에서 승리와 패배 후의 인과 귀인 차원과 감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McAuley, Russell, & Gross, 1983).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개인의 미래 행동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 행동 예측은 스포츠 성취상황에서 과제에 대한 개인의 동기와 수행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대부분이 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스포츠 귀인 연구의 대부분은 Weiner(1986)의 귀인모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의 이론은 Heider(1958)의 환경적 범주인 ‘상황’과 ‘역할’의 규범을 토대로 Jones & Davis(1965)는 의도성에 따른 개인의 외적·내적 귀인요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과 기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Kelly(1967)의 타인귀인 뿐만 아니라 자기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론의 총체적인 모형이라 하겠다. 1970-1980년대 스포츠 상황은 귀인모델을 적용하려는 실험과 현장연구가 시도 되었으며 현재 국내의 스포츠 귀인연구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Weiner(1972)의 귀인이론은 동기이론으로 체계화 되었다. 즉, 성취상황에서의 개인의 동기와 경험하는 정서는 대부분 귀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귀인 연구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전형적인 귀인 반응에서부터 귀인과 정서의 관계에 대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을 확장시켰다. 스포츠 상황에서 귀인이론은 3차원 분류로 안정성(stability), 인과성(causality), 통제성(control)으로, 특히,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의 차원들을 능력(ability), 노력(effort), 과제난이도(task difficulty), 운(luck)의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행동결과를 결정해 주는 인적인 힘은 능력과 노력으로 구분하며, 행동결과의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작용은 과제의 난이도와 운이다. 특히, 과제의 난이도는 경기에 있어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로 분리되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인적요인인 능력과 환경적 요인인 과제의 난이도는 서로 상호작용 된다. 또한 운은 결과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가변성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 하겠다.

Weiner(1972)의 3차원 도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성 차원은 원인 소재에 따라 경기 결과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내적인(성격, 능력, 동기, 기분 등) 것에 귀인 하느냐 아니면 외적인(상황적 압력, 타인, 운, 과제난이도 등) 것에 귀인 하느냐에 따른 수행결과와 관련된 효과를 결정하게 되며, 특히 안정성 차원에 있어서 미래 수행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운동수행에 있어 선수가 노력이나 능력에 관련된 성공을 경험한 경우 자신감과 만족감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성공적 경험은 미래 수행에 기내를 가지게 하는 반면 노력을 통한 성공 경험은 미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성이 높다. 가변성이 있기에 선수의 미래 수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안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경험의 실패는 운동선수로 하여금 수치심과 죄의식, 포기와 같은 심리적 수축을 야기 시키게 된다. 아울러 외적 요인 운과 과제 난이도에 대한 귀인의 경우 분노와 감정이 증대된다(Weiner, 1986).

둘째, 안정성 차원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성격, 능력, 지능, 재능에 관한 것으로 통제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에 따라 성공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게 되고 통제가능성이 없다고 인식되면 무기력한(helpless)양상이 나타난다. 능력,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이고, 불안정은 노력, 운을 말한다. 운동 수행에 있어 실패의 경험은 노력과 능력의 실패로 수치심을 자극시킨다. 능력과 같은 안정적 차원과 실패는 미래에 주어질 상황에서 유사한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는 반면, 노력과 같은 불안정적 귀인과의 연관은 미래의 운동수행의 기대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능력을 통한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은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수치심을 증가시키면서 현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지만 실패의 경험을 노력에 귀인한다면 오히려 운동 수행과정에 있어 목표 성향을 높임으로 다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능력에 비해 노력의 부족으로 실패를 귀인하는 것은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안정된 환경요인은 운동수행에 있어 능력과 노력의 내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기회와 운 같은 불안정한 속성이 행위결과를 촉진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것으로 스포츠 성패상황의 결과를 예측하고 추론하게 한다.

셋째, 통제가능성은 자신이 결과를 통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된다. 개인의 지각과 행동의 변화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이를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라고 하였다. 인간 행동은 재현될 가능성에서 통제의 소재와 보상의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환경적 귀인요인과 개인적 귀인요인의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 불가능은 능력, 운, 과제 난이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각성 수준 등은 선수의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선수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조절 하였는지에 따라 개인의 노력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차후 결과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둘 것인가, 타인에게 둘 것인가 하는 것을 통제가능성 여부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다시 경험 하지 않기 위해 특히 개인의 통제감은 매우 중요하며, 내재적 통제 위치가 높은 학생은 내재적 통제 위치가 낮은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Biddle & Hill(1988)은 스포츠 상황에서 승자와 패자의 귀인을 구분해주는 것은 인과의 소재 차원이 아니라 안정성 차원과 통제성 차원이라고 하였다. 성공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안정적이고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을 행위자 스스로가 안정성 있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재적 통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적 통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높이게 되며 수행목표를 성취 지향적이게 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 운 또는 타인에 의한 개인통제가 되지 않는 것에 귀인을 하는 것 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노력부족의 원인으로의 귀인은 선수 개인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 시키게 될 것이다. 훈련과 경기마다 특정 분야에서 향상되어 부분을 강조하여 칭찬해 주고 과거의 노력과 과거의 성취경험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해 준다면 미래의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귀인 연구에 있어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만으로는 스포츠 상황에서의 귀인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기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팀워크, 응집성, 심리적 요인, 연습, 코칭, 임원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선행연구

최영옥(1988)은 스포츠 상황에서 유도선수와 펜싱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자신감과 귀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스포츠 자신감이 높은 펜싱선수는 승리를 불안정 적이고 내적인 요인과 과제난이도였고, 유도선수는 안정적이고 내적인 요인인 노력에 각각 귀인하였다. 김정숙(1998)은 무용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용수의 동기화를 위하여 귀인요인을 활용하였다. 첫째, 공연의 성공 인식도에서는 여자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공연성패에 대한 여섯 가지 귀인요인에 대한 인식도는 남녀 무용수간에 차이는 없었다. 둘째, 공연의 성패에 대한 인식도 및 공연 성패에 대한 여섯 가지 귀인요인 인식도는 무용 전공요인과 무용 경력요인 및 공연 역할요인 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셋째, 공연의 성패 인식도에서 공연 횟수 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공연성패는 노력과 보조연출 귀인요인 인식도는 공연 횟수 10회 이상의 무용수가 10회 이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연의 성패 인식도 및 노력, 난이도, 보조연출 귀인요인에 대한 귀인인식에서 과거공연을 성공적이라 인식하는 무용수가 높았다.

다섯째, 무용수의 공연성패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인요인은 운, 능력, 노력, 난이도, 동료, 보조 연출 중에서 노력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은(2000)은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가 스포츠 자신감 및 귀인형태에 미치는 효과에서 성별에 따라 승리 시에 나타나는 귀인요인으로 능력, 과제난이도, 운, 노력귀인은 모두 남자가, 실패 시에 귀인요인으로는 능력과 운은 여자가 높았다. 경기력에서 승리 시에 드러나는 귀인요인은 능력, 과제난이도, 운, 능력 모두 경기력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높았고, 실패 시 나타나는 귀인요인은 능력, 과제난이도에서 남녀 모두 상위집단이, 운 귀인에서는 남녀 경기력 하위집단이 높았다. 또한 노력귀인에서는 남자가 경기력 하위집단에서, 여자는 경기력 상위집단이 높았다. 반면에 성취목표성향, 내적동기, 스포츠 자신감과 귀인형태의 인과관계에서는 첫째, 능력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아지향성은 성공과 실패

시 남자집단과 경기력 상위집단에서, 상태자신감은 성공 시 성별 및 경기력별 능력 귀인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긴장감은 실패 시 성별 및 경기력별 정적영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력을 결과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 시 성별 및 경기력 집단 모두 과제지향성에서 노력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쳤으며, 내적동기에 서도 노력귀인이 영향을 주었다.셋째, 과제난이도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 시 자아지향성이 성별 및 경기력 모두 과제난이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패 시에는 자아지향성과 과제지향성 모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성자신감과 상태자신감이 성공 시 부적영향을 미쳤다. 실패 시에는 특성 및 상태자신감에서 부적영향을 받았다. 넷째, 운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 시 남자집단과 상위집단에서 자아지향성, 과제지향성이 운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공 시 긴장감은 남녀 집단에서 정적영향을 미쳤다. 실패 시에는 남자집단에서 흥미가, 여자집단에서 는 노력과 상태자신감이 정적영향을, 유능감은 부적영향을 미쳤다.

최종인(2000)은 태권도 경기에서의 승패와 성별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첫째, 태권도 선수의 승패결과에 있어 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승리한 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결과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능력, 과제의 난이도, 운의 순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배한 선수들의 경우는 자신의 결과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과제의 난이도, 능력, 운의 순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 경기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선수, 여자선수 모두 자신의 결과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능력, 과제의 난이도, 운의 순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승리한 남자선수는 노력, 능력, 과제의 난이도, 운의 순으로 승리한 여자선수는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 순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배한 남자선수는 노력, 과제의 난이도, 능력, 운의 순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배한 여자선수는 과제의 난이도와 노력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능력, 운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 선수의 승패와 성별에 따른 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한 결과, 내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능력 요인이 승리한 선수들보다 패배한 선수들이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패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승리한 선수들과 여자선수들은 자신의 결과를 능력에 귀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적이며, 안정적인 과제의 난이도 요인에서는 승패에 따라 패배한 선수들이 승리한 선수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패배한 선수들이 자신의 결과를 과제의 난이도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자선수들이 남자선수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패와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이며 불안정한 운 요인에서는 패배한 선수들이 자신의 결과를 운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여자선수들이 남자선수들보다 자신의 결과를 운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패와 성별에 따른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이며, 불안정한 노력요인에서는 승리한 선수들이 자신의 결과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수(2001)는 사격 선수의 경기 성패와 귀인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사격선수의 경기성패와 귀인요인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귀인특성에서는 운 귀인요인이 남자가 더 높았다. 종목별(권총과 소총)과 경기 참여 횟수에서는 경기성패와 귀인요인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사격선수의 경기성패와 귀인요인의 특성에서는 과거경기 성패 기억간의 차이에서 성공기억 집단이 실패기억 집단보다 경기성패, 능력, 도구, 운 귀인요인이 인식률이 높았다.

안희구(2003)는 고교 조정선수들이 성공과 실패, 목표성향이 귀인유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성공과 실패귀인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력별로 성공 귀인유형은 상위경력집단이 상대분석과 정신력, 노력, 컨디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패배귀인유형은 상위경력집단이 자만심, 심리적 부담, 정신력 저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상경험에 따른 귀인유형은 입상경험이 있으면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패배귀인에서는 입상경험 선수에게 컨디션 난조, 정신력 저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원배, 윤영길(2003)은 한국 운동선수들이 시합결과를 어떻게 귀인하는지를 측정하는 한국형 스포츠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운동선수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개방형 질문지로 그 원인을 탐색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성공귀인 측정 질문지와 패배 귀인 측정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들 질문지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타당도 분석으로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판별분석을 통해 운동유형에 따른 성공과 패배귀인의 판별정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패배귀인유형인 노력, 능력, 운, 과제 난이도의 네 가지 유형 이외 스포츠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공귀인으로 능력, 정신력, 지도력, 상대수준, 노력, 컨디션, 자신감, 집중력이 있었으며, 실패귀인으로는 노력부족, 컨디션 난조, 자만심,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부담감, 능력부족, 정신력 저하, 체력부족, 지도력, 상대수준, 팀워크, 운 등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유형을 구분하였다. 천길영, 전기영(2003)은 중·고등학교 유도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귀인유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첫째, 과제의 성공지각 시 성취목표성향과 귀인유형간의 관계에서는 과제지향 및 자아지향적 목표성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과제지향적 목표성향은 노력과 자아지향적 목표성향은 능력과 노력, 과제 난이도와 운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노력과 과제의 난이도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과제의 실패지각 시 성취목표성향과 귀인유형간의 관계에서는 과제성향과 노력 간, 능력과 운, 과제 난이도와 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김찬주(2005)가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자 개인종목 선수일 경우 과제지향적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 정신력과, 과제지향 및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도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자 대인종목 선수일 경우 과제지향 및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과 컨디션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워크 경우는 과제지향적 성취목표성향에서 낮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여자 개인종목 선수일 때 과제지향적 성취목표 성향은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팀워크, 정신력 귀인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면, 대인종목 선수이면 과제지향 및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컨디션, 팀워크, 지도력 귀인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남자 개인종목 선수에서면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서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 컨디션 난조와 자만심이 과제지향 및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자 대인종목 선수이면 팀워크부족 귀인은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과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컨디션 난조, 자만심, 심리적 부담 귀인은 과제지향 및 자아지향적 성취목표성향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여자 개인종목 선수의 경우 팀워크 부족,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자만심 귀인이 성취목표성향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대인종목 선수의 경우 팀워크 부족,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자만심, 심리적 부담은 과제지향적 성취목표성향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구본칠, 김찬주(2005)가 고등학교 선수의 성격특성과 귀인의 관계에서 남자 개인종목 선수일 경우 동조성이 강할수록 정신력 성공귀인이 높아졌으며, 컨디션과 팀워크 성공귀인은 선수의 성격특성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운과 책임성 및 우월성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도력은 안정성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동조성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자 대인종목 선수가 사려성과 동조성이 강할수록 정신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안정성, 지배성, 책임성, 남향성, 우월성이 강할수

록 운의 경향이 낮았으나, 동조성이 강할수록 팀워크나, 운, 지도력과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 성격특성과 컨디션 성공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여자 개인종목 선수일 경우 우월성과 성공시 정신력에 귀인하는 경향과 사회성과 팀워크는 유의한 정적상관 이였지만, 사회성과 책임성이 강한 성격 선수는 운에 귀인하는 경향이 적어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자 대인종목이면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이 강할수록 정신력 귀인하는 정도가 높아 지배성, 사회성, 사려성, 동조성과 컨디션 귀인과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과 팀워크 귀인과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귀인이 일때 남자 개인종목 선수는 사회성과 컨디션 난조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충동성과 자만심 귀인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이고, 안정성, 사회성, 남향성, 우월성과 심리적 부담 귀인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였다. 남자 대인종목 선수는 안정성과 우월성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였으나 충동성과 정적상관관계였다. 또한 안정성, 책임성, 우월성과 정신력 저하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나, 동조성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였다. 여자 개인종목 선수의 팀워크 부족과 정신력 저하 귀인은 성격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컨디션 난조는 사려성 및 충동성과 정적 상관관계였으나 심리적 부담감에서는 선수의 성격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인종목 선수가 안정성이 강한 성격일수록 팀워크부족에 귀인하며, 동조성이 강한 성격일 때는 정신력 저하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우월성은 낮지만 책임성이 높은 선수는 컨디션 난조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장재근(2008)은 성취목표성향과 귀인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성취목표 성향의 하위 요인인 성공귀인과 실패귀인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과제성향과 자기성향이 성공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고교 육상선수들의 과제성향 요인이 성공귀인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실패귀인에서 살펴보면 과제 및 자기성향 모두 실패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교 육상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성향 모두 실패귀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무현, 김신호(2009)는 고등부 유도선수의 일반적 성격특성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성공귀인 변인의 하위요인으로 남녀 유도선수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여자선수들은 남자에 비해 성공적인 변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도선수의 일반성격 특성과 성공귀인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도선수의 남향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성공 시 정신력에 귀인 경향이 높았고, 사회성이 높으면 정신력, 지도력, 노력, 컨디션 성공귀인도 컸으며 남향성은 정신력과 우월성은 지도력과 상관이 있었다. 성공귀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성격특성은 사회성이며, 남향성이 높으면 심리적 부담 귀인은 낮았고, 동조성이 높으면 컨디션 난조 귀인도 높았다. 실패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성격 특성은 우월성과 동조성이다.

안주미, 여인성(2010)은 에어로빅 체조선수의 스포츠 자신감이 귀인유형, 지속과 탈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스포츠 자신감이 성공과 실패의 귀인유형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실패귀인에서는 탈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스포츠 자신감은 스포츠 탈퇴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에어로빅 체조선수들에게 탈퇴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더 받았다. 결과적으로 운동선수들의 운동지속여부는 귀인유형이 중요하면서 특히 실패귀인이 탈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성공적인 선수와 실패적인 선수들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지적하며, 시합과 연습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겸비할 심리적 요인으로 자신감의 중요성을 스포츠 상황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에게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취상황에서도 인간의 수행을 높여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자신감은 개인의 능력을 믿으며,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략인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남, 여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육학, 사회학, 심리학 연구영역에서 이루어진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 및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의 인과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배경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소속, 포지션 선수경력), 독립변수 I인 성취목표성향(자아성향, 과제성향), 독립변수 II인 자기관리전략(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종속변수인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모형을 정립하고 각 변수를 정의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대한축구협회 경기단체 등록한 남, 여 축구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구성요소들이 군집화 되어 있는 경우 군집을 표본단위로 하여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하고, 표집된 군집내에 있는 대상을 전수조사하거나 일부 조사하는 방법이다(김경식, 2010). 표본의 추출절차는 대한축구연맹(KFA) 홈페이지(<http://www.kfa.or.kr>)에 등록된 팀 주소록을 기준으로 경기지역, 서울지역, 호남지역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 일련의 번호를 부여한 뒤 난수표를 이용하여 경기지역, 서울지역, 호남 지역에 위치한 고등부(경기지역 T고등학교, S고등학교, Y고등학교 3개교, 서울지역 D고등학교, S고등학교, K고등학교 3개교, 호남지역 K고등학교, S고등학교, Y고등학교(여자팀) 3개교) 총 9개팀으로 구성, 대학부(경기지역 S대학교, Y대학교(여자팀) 2개교, 서울지역 K대학교, S대학교 2개교, 광주지역 H대학교, C대학교(여자팀) 2개교) 총 6개팀

구성, 프로팀(경기지역, 수원 FC 축구단, 성남 일화 축구단, 안양 FC 축구단 3개팀, 호남지역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광주 FC 축구단 2개팀) 총 5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남성 300명, 여성 100명을 중심으로 총400명을 표집(sampling)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이중응답, 이상치 자료 54명의 사례수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46명의 사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결과, 남성은 270명(78%), 여성은 76명(22%)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은 고교팀 152명(43.9%), 대학팀 105명(30.3%), 프로팀 89명(25.7%)으로 나타났다. 포지션 분석결과 공격수 73명(21.1%), 미드필더 115명(33.2%), 수비수 104명(30.1%), 골키퍼 54명(15.6%)로 나타났으며, 선수경력은 5년 미만이 53명(15.3%), 6년 이상~ 10년 미만이 71명(20.5%), 11년 이상~15년 미만이 133명(38.4%), 16년 이상~20년 이상 89명(25.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성	270	78.0
	여성	76	22.0
소속	고교팀	152	43.9
	대학팀	105	30.3
포지션	프로팀	89	25.7
	공격수	73	21.1
선수경력	미드필더	115	33.2
	수비수	104	30.1
	골키퍼	54	15.6
	5년 미만	53	15.3
	6년 이상~ 10년 미만	71	20.5
	11년 이상~15년 미만	133	38.4
	16년 이상~20년 이상	89	25.7

## 2. 조사도구

축구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선별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과제에 적절한 문항을 선별 하였으며, 이들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4문항, 성취목표성향 13문항, 자기관리전략 25문항, 스포츠 귀인 47문항 등 총 8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수	하위요인	문항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소속, 포지션, 선수경력	4
성취목표성향	자아성향, 과제성향	13
자기관리전략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25
	성공귀인-정신력, 팀워크, 운, 상대분석, 노력, 컨디션, 지도력	25
스포츠 귀인	패배귀인-팀워크 부족,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자만심, 심리부담	22
총문항		89

## 1)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성향의 측정은 Duda와 Nicholls(1989)가 개발한 성취목표 검사지(TEOSQ :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변영신(1993), 성창훈(1995)이 번안하였으며, 김병준(2001) 및 김성준(2011)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 질문지는 서로 독립적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아성향을 묻는 6개의 문항과 과제성향을 묻는 7개 문항으로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1932)로 구성하였다.

## 2) 자기관리 전략

축구선수들의 자기관리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정훈(2002)이 개발하고 ‘운동선수 자기관리 검사지(Athletic Self Management Questionnaire: ASMQ)’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서로 독립적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관리를 묻는 6개의 문항, 몸관리를 묻는 7개 문항, 대인관리를 묻는 5개 문항, 훈련관리를 묻는 7개 문항으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1932)로 구성하였다.

## 3) 스포츠 귀인

스포츠 귀인 검사지는 김원배와 윤영길(2003)가 개발하였으며, 김찬주(2006)가 사용한 한국형 스포츠 귀인도구를 사용하였다. 스포츠 귀인은 크게 성공귀인과 패배귀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성공귀인

성공귀인은 서로 독립적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력, 팀워크, 운, 상대분석, 노력, 컨디션, 지도력을 묻는 문항으로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1932)로 구성하였다.

### (2) 실패귀인

실패귀인은 서로 독립적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팀워크부족,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자만심, 심리부담을 묻는 문항으로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1932)로 구성하였다.

## 4)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는 성별, 소속, 포지션, 운동경력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소속은 ‘고교팀’, ‘대학팀’, ‘프로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포지션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선수경력은 ‘5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1년 이상~15년 미만’, ‘16년 이상~20년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 3.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 1) 성취목표성향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취목표성향에 대한 KMO 검정 결과 .804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05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이는 요인분석을 수행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성취목표성향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이 2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값이 낮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51.4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성향 요인 13.04%, 과제성향 요인 38.41%,로 나타났다. 자기성향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608에서 최대 1.015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775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과제성향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512에서 최대 .797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28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3. 성취목표성향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코드	성취목표성향	
	자아성향	과제성향
1	1.015	-.221
2	.608	.198
3	.617	.115
4	-.111	.582
5	-.008	.674
6	.254	.512
7	.087	.615

8	-.062	.797
9	.047	.729
고유값 (eigen value)	3.458	1.174
%분산	38.419	13.047
%누적	51.466	13.047
Cronbach's alpha	.775	.828
KMO=.8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1190.808$ , df=36, p=.000		

## 2) 자기관리전략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자기관리전략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을 실시하였다. 자기관리 전략에 대한 KMO 검정 결과 .874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05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이는 요인분석을 수행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자기관리 전략요인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 값이 낮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48.8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신관리 요인 29.96%, 몸관리 요인 9.14%, 대인관리 요인 5.94%, 훈련관리 요인 3.83%로 나타났다. 정신관리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79에서 최대 .820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37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몸관리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49에서 최대 .820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03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대인관리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21에서 최대 .809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763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훈련관리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564에서 최대 .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774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4. 자기관리전략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코드	자기관리 전략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1	.817	-.178	-.058	.113
2	.759	.084	-.079	-.053
3	.704	.008	.001	-.018
4	.622	.169	-.098	.070
5	.534	-.021	.385	-.034
6	.479	.065	.226	-.125
7	.082	.820	-.232	-.030
8	-.012	.697	-.054	.134
9	.034	.689	.040	.023
10	-.139	.598	.237	.014
11	.115	.490	.116	-.020
12	-.038	.449	.156	-.087
13	-.050	-.064	.809	.069
14	.004	-.006	.692	.007
15	-.010	.133	.606	-.039
16	.091	.029	.421	.114
17	.114	-.075	-.026	.814
18	-.033	.115	.018	.674
19	-.108	.014	.216	.564
고유값 (eigen value)	6.191	2.204	1.612	1.203
%분산	29.964	9.140	5.949	3.833
%누적	29.964	39.104	45.053	48.886
Cronbach's alpha	.837	.803	.763	.774
KMO=.8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2549.831, df=171, p=.000$				

### 3) 성공귀인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성공귀인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을 실시하였다. 성공귀인에 대한 KMO 검정 결과 .904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05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이는 요인분석을 수행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성공귀인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값이 낮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52.7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컨디션 요인 35.98%, 팀워크 요인 7.54%, 운 요인 5.25%, 상대분석 요인 3.97%로 나타났다. 정신력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629에서 최대 .746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77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팀워크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41에서 최대 .803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03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운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592에서 최대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18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상대분석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666에서 최대 .835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792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5. 성공귀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코드	성공귀인			
	정신력	팀워크	운	상대분석
1	.761	-.059	.001	-.020
2	.746	-.088	.046	.051
3	.708	.071	-.135	.099
4	.673	.028	.041	-.092
5	.658	-.050	.064	.047

6	.635	.109	.015	-.012
7	.629	.065	.097	.033
8	-.193	.803	.155	-.195
9	.287	.625	-.166	-.093
10	-.042	.568	-.138	.304
11	.276	.555	-.037	-.051
12	-.064	.498	.177	.140
13	.057	.441	.179	.096
14	-.023	-.021	.882	.006
15	-.031	.105	.732	.007
16	.263	-.046	.592	.016
17	-.050	.019	.031	.835
18	.007	.049	.022	.716
19	.117	-.128	-.008	.666
고유값 (eigen value)	7.309	1.874	1.425	1.213
%분산	35.989	7.545	5.254	3.975
%누적	35.989	43.534	48.788	52.763
Cronbach's alpha	.877	.803	.818	.792
KMO=.9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2712.951, df=171, p=.000$				

#### 4) 실패귀인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실패귀인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을 실시하였다. KMO 검정 결과 .878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05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이는 요인분석을 수행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실패귀인 요인은 선형연구와 동일하게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의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나, 심리부담의 경우 고유값(eigen value)이 ‘1’에 약간 못 미치는 .945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값이 낮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57.95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팀워 부족 요인 38.624%, 정신력 저하 요인 8.519%, 컨디션 난조 요인 4.190%, 자만심 요인 3.975%, 심리부담 요인 3.025%로 나타났다. 팀워 부족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629에서 최대 .746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67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 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정신력 저하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50에서 최대 .655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25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 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컨디션 난조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68에서 최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23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 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자만심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757에서 최대 .868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816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 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심리부담의 요인 적재값은 최소 .429에서 최대 .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711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적재값 및 신뢰도 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6. 패배귀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코드	패배귀인				
	팀워 부족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자만심	심리부담
1	.952	.105	-.145	-.164	.073
2	.827	.131	-.072	-.104	.044
3	.621	.109	-.097	.192	-.103
4	.616	-.059	.155	.009	.054
5	.593	.110	-.056	-.021	.077
6	.400	-.197	.310	.298	-.100
7	-.060	.655	.157	.129	.022
8	.144	.614	.109	.061	-.180
9	.093	.488	-.005	.110	.041
10	.276	.450	.175	.013	-.036
11	-.139	.182	.912	-.059	-.034

12	-.089	.294	.793	-.124	-.004
13	.017	.121	.542	-.053	.254
14	.390	-.268	.468	.161	-.074
15	-.081	.124	-.072	.862	.063
16	-.024	.185	-.112	.757	.032
17	.033	-.051	.062	.006	.909
18	.190	-.106	-.051	.175	.429
고유값 (eigenvalue)	7.748	1.969	1.120	1.113	.945
%분산	38.624	8.519	4.190	3.568	3.025
%누적	38.624	47.143	51.334	54.901	57.954
Cronbach's alpha	.867	.825	.823	.816	.711

KMO=.87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473.511$ , df=171, p=.000

####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회수한 다음 분석 가능한 유효 표본만을 대상으로 SPSS 19.0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들의 전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둘째,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실제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I 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및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II와 가설III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7. 통계기법

구분	내용	통계기법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소속, 포지션, 선수경력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	Pearson의 상관분석
가설 I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전략, 스포츠 귀인의 차이	t-test 및 one-way ANOVA
가설 II	성취목표 성향이 스포츠 귀인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가설 III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 IV. 결과 및 논의

### 1. 결과

본 연구는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의 상관관계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의 차이 셋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 상관관계분석 결과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관측변수에 대해서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항목묶음(item parceling)이 실시된 구성요인들의 상호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변인 끼리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자아성향(1)	1							
과제성향(2)	.403**	1						
정신관리(3)	.486**	.491**	1					
몸관리(4)	.251**	.359**	.496**	1				
대인관리(5)	.011	.131*	.353**	.391**	1			
훈련관리(6)	.078	.300**	.322**	.419**	.486**	1		
실패귀인(7)	.071	.110*	.314**	.276**	.478**	.297**	1	
성공귀인(8)	.242**	.443**	.496**	.599**	.475**	.426**	.443**	1

\*  $p < .05$ , \*\*  $p < .01$

## 2)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의 차이

본 연구의 가설 I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전략,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및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표 9>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 대한 t-test 및 one-way ANOVA, 사후검증(Bonferroni)검증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 분석결과 자아성향( $t=1.245$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제성향( $t=2.069$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자아성향( $F=4.199^*$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대학팀 보다 자아성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속에 따른 과제성향( $F=1.806$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지션에 따른 자아성향( $F=.122$ )의 차이, 과제성향( $F=.069$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수경력에 따른 자아성향( $F=.731$ )의 차이, 과제성향( $F=.077$ )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M \pm SD$ )

구분	성취목표성향	
	자아성향	과제성향
성별	남성	3.43±.87
	여성	3.30±.74
	t-value	1.245
소속	고교팀 <sup>a</sup>	3.44±.76
	대학팀 <sup>b</sup>	3.22±.91
	프로팀 <sup>c</sup>	3.56±.86

	F-value	4.199*	1.806
	Bonferroni	b<c	NS
포지션	공격수 <sup>a</sup>	3.54±.80	3.81±.65
	미드필더 <sup>b</sup>	3.45±.73	3.69±.66
	수비수 <sup>c</sup>	3.36±.94	3.75±.77
	골키퍼 <sup>d</sup>	3.20±.89	3.99±.61
	F-value	.122	.069
	Bonferroni	NS	NS
선수경력	5년미만 <sup>a</sup>	3.48±.86	3.88±.74
	6년이상~10년미만 <sup>b</sup>	3.33±.81	3.73±.67
	11년이상~10년미만 <sup>c</sup>	3.38±.89	3.68±.70
	16년이상~20년미만 <sup>d</sup>	3.45±.79	3.91±.65
	F-value	.731	.077
	Bonferroni	NS	NS

\*  $p < .05$

## (2)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전략의 차이

<표 10>은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전략의 차이에 대한 t-test 및 one-way ANOVA, 사후검증(Bonferroni)검증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전략 차이분석 결과 정신관리( $t=3.394$ ), 몸관리( $t=3.252$ ), 대인관리( $t=2.035$ ), 훈련관리( $t=2.257$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정신관리( $F=6.236^{**}$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고교팀 보다 정신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몸관리( $F=6.115^{**}$ )의 차이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팀이 고교팀 보다 몸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인관리( $F=2.236$ ) 및 훈련관리( $F=1.562$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포지션에 따른 정신관리( $F=2.975$ ), 몸관리( $F=2.146$ ), 대인관리( $F=2.123$ ), 훈련관리 ( $F=2.529$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수경력에 따른 정신관리( $F=11.070^{***}$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5년미만, 6년이상~10

년미만, 11년 이상~15년미만 참여자에 비해 16년이상~20년 미만의 선수경력자가 정신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몸관리( $F=0.787$ ), 대인관리( $F=1.884$ ), 훈련관리( $F=1.198$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전략의 차이 ( $M\pm SD$ )

구분	성취목표성향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성별	남성	3.67±.68	3.78±.64	3.33±.77	3.74±.68
	여성	3.36±.70	3.51±.61	3.13±.72	3.54±.69
	t-value	3.394	3.252	2.035	2.257
소속	고교팀 <sup>a</sup>	3.57±.66	3.62±.63	3.19±.73	3.63±.71
	대학팀 <sup>b</sup>	3.46±.75	3.70±.64	3.36±.73	3.71±.69
	프로팀 <sup>c</sup>	3.81±.63	3.91±.62	3.36±.84	3.79±.69
포지션	F-value	6.236**	6.115**	2.236	1.562
	Bonferroni	a<c	a<c	NS	NS
	공격수 <sup>a</sup>	3.71±.79	3.71±.72	3.32±.77	3.70±.70
선수경력	미드필더 <sup>b</sup>	3.50±.63	3.61±.61	3.14±.70	3.56±.63
	수비수 <sup>c</sup>	3.54±.70	3.82±.64	3.35±.74	3.79±.69
	골키퍼 <sup>d</sup>	3.78±.63	3.77±.59	3.41±.89	3.79±.74
	F-value	2.975	2.146	2.123	2.529
	Bonferroni	NS	NS	NS	NS
	5년미만 <sup>a</sup>	3.56±.79	3.68±.71	3.30±.78	3.71±.70
	6년이상~10년미만 <sup>b</sup>	3.39±.70	3.71±.62	3.23±.73	3.61±.74
	11년이상~15년미만 <sup>c</sup>	3.50±.61	3.68±.60	3.20±.75	3.67±.65
	16년이상~20년미만 <sup>d</sup>	3.94±.63	3.81±.69	3.44±.78	3.80±.70
	F-value	11.070***	.787	1.884	1.198
	Bonferroni	a,b,c<d	NS	NS	NS

\*\*  $p<.01$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귀인의 차이

<표 11>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귀인의 차이에 대한 t-test 및 one-way ANOVA, 사후검증(Bonferroni)검증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성공귀인 차이 분석 결과 정신력( $t=3.368$ ), 팀워크( $t=2.045$ ), 운( $t=3.141$ ), 상대분석( $t=4.048$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정신력은 차이가( $F=4.772^{**}$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고교팀과 대학팀 보다 정신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팀워크 역시 차이가( $F=4.490$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고교팀 보다 몸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운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F=5.935^{**}$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고교팀 보다 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상대분석은 차이가( $F=3.219^*$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고교팀 보다 상대분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정신력은 차이가( $F=2.631^*$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골키퍼가 미드필더 보다 정신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포지션에 따른 팀워크 역시 차이가( $F=2.887^*$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키퍼가 미드필더 보다 팀워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운( $F=2.310$ ) 및 상대분석( $F=2.554$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수경력에 따른 정신력은 차이가( $F=5.919^{**}$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16년이상~20년미만이 5년미만과 6년이상~10년미만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운 역시 유의한 차이가( $F=6.069^{***}$ ) 나타났으며,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16년이상~20년미만이 6년이상~10년미만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팀워크( $F=2.056$ ) 및 상대분석( $F=.827$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귀인의 차이(M±SD)

구분	성공귀인				
	정신력	팀워크	운	상대분석	
성별	남성	3.80±.67	3.57±.65	3.61±.82	3.89±.68
	여성	3.51±.58	3.40±.60	3.32±.67	3.53±.69
	t-value	3.368	2.045	3.141	4.048
소속	고교팀 <sup>a</sup>	3.66±.68	3.42±.63	3.39±.79	3.71±.69
	대학팀 <sup>b</sup>	3.69±.64	3.59±.67	3.60±.82	3.83±.73
	프로팀 <sup>c</sup>	3.92±.63	3.65±.62	3.75±.73	3.95±.66
포지션	F-value	4.772**	4.490*	5.935**	3.219*
	Bonferroni	a,b<c	a<c	a<c	a<c
	공격수 <sup>a</sup>	3.70±.67	3.61±.63	3.56±.75	3.74±.68
	미드필더 <sup>b</sup>	3.65±.58	3.43±.59	3.41±.79	3.71±.66
	수비수 <sup>c</sup>	3.74±.75	3.49±.66	3.58±.82	3.95±.72
	골키퍼 <sup>d</sup>	3.95±.60	3.71±.70	3.75±.79	3.85±.72
선수 경력	F-value	2.631*	2.887*	2.310	2.554
	Bonferroni	b<d	b<d	NS	NS
	5년 미만 <sup>a</sup>	3.59±.73	3.44±.71	3.54±.74	3.74±.70
	6년 이상~10년 미만 <sup>b</sup>	3.55±.65	3.47±.67	3.26±.99	3.75±.71
	11년 이상~15년 미만 <sup>c</sup>	3.74±.62	3.51±.56	3.54±.68	3.81±.67
	16년 이상~20년 미만 <sup>d</sup>	3.95±.64	3.67±.69	3.79±.74	3.90±.72
	F-value	5.919**	2.056	6.069***	.827
	Bonferroni	a,b<d	NS	b<d	NS

\*  $p < .05$ , \*\*  $p < .01$ , \*\*\*  $p < .001$

####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실패귀인의 차이

<표 12>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실패귀인의 차이에 대한 t-test 및 one-way ANOVA, 사후검증(Bonferroni)검증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분석 결과 정신력 저하( $t=2.132$ ), 심리부담( $t=2.302$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팀웍 부족( $t=1.591$ ), 컨디션 난조( $t=.058$ ) 및 자만심 ( $t=.934$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분석 결과 팀웍 부족( $F=1.002$ ), 정신력저하( $F=.881$ ), 컨디션 난조( $F=1.696$ ) 및 자만심( $F=1.493$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부담( $F=3.042^*$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프로팀이 고교팀 보다 심리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검증 결과 정신력저하( $F=1.168$ ), 컨디션 난조 ( $F=1.793$ ), 자만심( $F=1.917$ ) 및 심리부담( $F=1.861$ ) 및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팀웍부족( $F=5.752^{**}$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골키퍼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보다 팀웍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경력에 따른 팀웍 부족은 차이가( $F=5.459^{**}$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Bonferroni)결과 16년이상~20년미만이 5년미만과 6년이상~10년미만에 비해 팀웍 부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선수경력에 따른 컨디션 난조( $F=6.314^{***}$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Bonferroni)결과 16년이상~20년미만이 5년미만과 6년이상~10년미만 그리고 11년이상~15년미만에 비해 컨디션 난조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선수경력에 따른 심리부담( $F=3.007$ ) 역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Bonferroni)결과 11년이상~15년미만이 6년이상~10년미만에 비해 심리부담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력저하( $F=1.271$ ) 및 자만심( $F=.976$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실패귀인의 차이(M±SD)

		실패귀인				
구분		팀워크부족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자만심	심리적 부담감
성 별	남성	3.44±.76	3.24±.84	3.08±.93	3.38±.96	3.63±.82
	여성	3.29±.71	3.03±.68	3.07±.68	3.27±.83	3.41±.68
	t-value	1.591	2.132*	.058	.934	2.302*
소 속	고교팀 <sup>a</sup>	3.39±.73	3.13±.76	3.07±.91	3.38±.88	3.47±.74
	대학팀 <sup>b</sup>	3.36±.75	3.20±.87	2.98±.81	3.24±.94	3.60±.84
	프로팀 <sup>c</sup>	3.50±.78	3.28±.84	3.21±.90	3.47±1.0	3.73±.81
포 지 션	F-value	1.002	.881	1.696	1.493	3.042*
	Bonferroni	NS	NS	NS	NS	a<c
	공격수 <sup>a</sup>	3.36±.69	3.20±.71	3.04±.75	3.30±.88	3.53±.71
선 수	미드필더 <sup>b</sup>	3.32±.70	3.08±.74	2.98±.81	3.26±.89	3.49±.77
	수비수 <sup>c</sup>	3.35±.80	3.26±.79	3.10±.95	3.38±.87	3.60±.87
	골키퍼 <sup>d</sup>	3.79±.75	3.28±1.1	3.31±1.0	3.62±.93	3.79±.78
경 력	F-value	5.752**	1.168	1.793	1.917	1.861
	Bonferroni	a,b,c<d	NS	NS	NS	NS
	5년 미만 <sup>a</sup>	3.26±.87	3.04±.74	2.81±.94	3.20±.95	3.42±.86
경 력	6년이상~10년미만 <sup>b</sup>	3.17±.65	3.15±.68	2.96±.83	3.29±.79	3.43±.80
	11년이상~15년미만 <sup>c</sup>	3.46±.68	3.20±.80	3.03±.86	3.42±.84	3.60±.75
	16년이상~20년미만 <sup>d</sup>	3.61±.79	3.31±.96	3.40±.84	3.42±1.1	3.75±.79
	F-value	5.459**	1.271	6.314***	.976	3.007*
	Bonferroni	a,b<d	NS	a,b,c<d	NS	b<c

\* p&lt;.05, \*\* p&lt;.01, \*\*\* p&lt;.001

### 3)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1)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표 13>은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아성향( $\beta=.192^{***}$ ) 및 과제성향( $\beta=.418^{***}$ )은 정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델1과 마찬가지로 자아성향( $\beta=.418^{***}$ ) 및 과제성향( $\beta=.392^{***}$ )은 정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1의 설명력은 33.5%( $R^2=.335$ , adj  $R^2=.331$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39.3%( $R^2=.393$ , adj  $R^2=.377$ )로 나타났다.

표 13.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1.503***	.173	1.245***	.200
	자아성향	.192***	.038	.418***	.046
	과제성향	.418***	.045	.392***	.046
통제 변수	성별(여=1)			-.127	.072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121	.068
	프로팀			.115	.079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45	.081
	수비수			.016	.083
	골키퍼			.136	.106
	선수경력			.093**	.033
$R^2$ (adj $R^2$ )		.335(.331)		.393(.377)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2)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표 14>은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성향( $\beta=.313^{***}$ )은 팀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8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과제성향( $\beta=.297^{***}$ )이 팀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74$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9.5%( $R^2=.095$ , adj  $R^2=.090$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14.6%( $R^2=.146$ , adj  $R^2=.124$ )로 나타났다.

표 14.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2.672***	.196	2.547***	.231
	자아성향	-.081	.043	-.074	.043
	과제성향	.313***	.052	.297***	.053
성별(여=1)				-.075	.083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207**	.078
프로팀				.192*	.091
통제 변수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196*	.094
	수비수			-.182	.095
	골키퍼			-.043	.122
선수경력				.053	.038
$R^2$ (adj $R^2$ )		.095(.090)		.146(.124)	

\*  $p<.01$ ,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3)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

<표 15>은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성향( $\beta=.252^{***}$ )은 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33$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과제성향( $\beta=.224^{***}$ )이 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2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4.3%( $R^2=.043$ , adj  $R^2=.038$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10.6%( $R^2=.106$ , adj  $R^2=.082$ )로 나타났다.

표 15.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2.711***	.248	2.543***	.291
	자아성향	-.033	.054	-.021	.055
	과제성향	.252***	.066	.224**	.066
성별(여=1)				-.165	.105
소속(준거=고등팀)				.	.
통제 변수	대학팀			.227*	.098
	프로팀			.248*	.115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184	.118
	수비수			-.069	.120
	골키퍼			.043	.153
선수경력				.077	.048
$R^2(\text{adj } R^2)$		.043(.038)		.106(.082)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4)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

<표 16>은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아성향( $\beta=.117^*$ )과 과제성향( $\beta=.318^{***}$ )은 상대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자아성향( $\beta=.131^{**}$ )과 과제성향( $\beta=.303^{***}$ )이 상대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1의 설명력은 15.6%( $R^2=.156$ , adj  $R^2=.151$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21.6%( $R^2=.216$ , adj  $R^2=.195$ )로 나타났다.

표 16.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변수	상수	2.213***	.204	2.071***	.239
	자아성향	.117*	.045	.131**	.045
	과제성향	.318***	.055	.303***	.055
성별(여=1)				-.244**	.086
소속(준거=고등팀)				.	.
통제변수	대학팀			.187*	.081
	프로팀			.096	.095
	포지션(준거=공격수)			.	.
수	미드필더			.001	.097
	수비수			.208*	.099
	골키퍼			.075	.126
선수경력				.019	.040
$R^2(\text{adj } R^2)$		.156(.151)		.216(.195)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5)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워크 부족에 미치는 영향

<표 17>은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워크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아성향( $\beta=.117^*$ )과 과제성향( $\beta=.181^{**}$ )은 팀워크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자아성향( $\beta=.146^{**}$ )과 과제성향( $\beta=.132^*$ )이 팀워크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1의 설명력은 6.2%( $R^2=.062$ , adj  $R^2=.057$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12.9%( $R^2=.129$ , adj  $R^2=.105$ )로 나타났다.

표 17. 성취목표성향이 패배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워크 부족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2.331 ***	.232	2.135 ***	.272
	자아성향	.117 *	.051	.146 **	.051
	과제성향	.181 **	.062	.132 *	.062
성별(여=1)				-.077	.098
소속(준거=고등팀)				.	.
통제 변수	대학팀			.018	.092
	프로팀			.022	.108
	포지션(준거=공격수)			.	.
통제 변수	미드필더			-.066	.110
	수비수			-.046	.112
	골키퍼			.339 *	.143
	선수경력			.099 *	.045
	$R^2(\text{adj } R^2)$	.062(.057)		.129(.105)	

\*  $p<.05$ ,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6)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표 18>은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아성향( $\beta = -.072$ )과 과제성향( $\beta=.037$ )은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자아성향( $\beta=-.067$ )과 과제성향( $\beta=.016$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0.5%( $R^2=.005$ , adj  $R^2=.001$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3.2%( $R^2=.032$ , adj  $R^2=.006$ )로 나타났다.

표 18.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3.302***	.259	3.234***	.310
	자아성향	-.072	.057	-.067	.058
	과제성향	.037	.069	.016	.071
통제 변수	성별(여=1)			-.161	.112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055	.105
	프로팀			.039	.123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167	.126
	수비수			-.017	.128
	골키퍼			-.041	.164
	선수경력			.075	.052
$R^2$ (adj $R^2$ )		.005(.001)		.032(.006)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7)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

<표 19>은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아성향( $\beta=.047$ )과 과제성향( $\beta=-.088$ )은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자아성향( $\beta=.058$ )과 과제성향( $\beta=-.12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0.4%( $R^2=.004$ , adj  $R^2=.002$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6.5%( $R^2=.065$ , adj  $R^2=.040$ )로 나타났다.

표 19.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3.258***	.281	2.919***	.330
	자아성향	.047	.062	.058	.062
	과제성향	-.088	.075	-.121	.076
성별(여=1)				.	.
소속(준거=고등팀)				.068	.119
대학팀				-.111	.111
프로팀				.011	.131
통제 변수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162	.134
	수비수			-.023	.137
	골키퍼			.100	.174
선수경력				.177**	.055
$R^2$ (adj $R^2$ )				.004(.002)	.065(.040)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8)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

<표 20>은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성향( $\beta=.208^*$ )은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34$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과제성향( $\beta=.173^*$ )이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23$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2.1%( $R^2=.021$ , adj  $R^2=.061$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4.2%( $R^2=.042$ , adj  $R^2=.061$ )로 나타났다.

표 20.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2.692***	.294	2.676***	.356
	자아성향	-.034	.065	-.023	.066
	과제성향	.208*	.078	.173*	.080
성별(여=1)				-.034	.127
소속(준거=고등팀)				.	.
통제 변수	대학팀			-.113	.120
	프로팀			.068	.140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30	.144
	수비수			.055	.147
	골키퍼			.249	.186
선수경력				.034	.059
$R^2(\text{adj } R^2)$		.021(.016)		.042(.016)	

\*  $p<.05$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9)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

<표 21>은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과제성향( $\beta=.168^{**}$ )은 심리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기성향( $\beta=.168$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과제성향( $\beta=.137^{**}$ )이 심리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자아성향( $\beta=.053$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2.7%( $R^2=.027$ , adj  $R^2=.022$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7.0%( $R^2=.070$ , adj  $R^2=.045$ )로 나타났다.

표 21.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2.827***	.250	2.604***	.297
	자아성향	.036	.055	.053	.056
	과제성향	.168**	.067	.137**	.068
통제 변수	성별(여=1)			-.118	.107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152	.100
	프로팀			.158	.117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71	.121
변수	수비수			.006	.123
	골키퍼			.158	.156
	선수경력			.078	.049
	$R^2(\text{adj } R^2)$	.027(.022)		.070(.045)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4)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1)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표 22>은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신관리( $\beta=.430^{***}$ ), 몸관리( $\beta=.389^{***}$ )는 정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대인관리( $\beta=-.075$ ), 훈련관리( $\beta=.015$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정신관리( $\beta=.406^{***}$ ), 몸관리( $\beta=.394^{***}$ ), 대인관리( $\beta=-.080^{**}$ )은 정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훈련관리( $\beta=.010$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48.8%( $R^2=.488$ , adj  $R^2=.482$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50.4%( $R^2=.504$ , adj  $R^2=.487$ )로 나타났다.

표 22.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936***	.182	.871***	.205
	정신관리	.430***	.043	.406***	.045
	몸관리	.389***	.049	.394***	.049
	대인관리	-.075	.040	-.080*	.040
	훈련관리	.015	.045	.010	.045
통제 변수	성별(여=1)			-.068	.065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036	.061
	프로팀			-.008	.072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08	.074
수비수	.003	.076
골키퍼	.114	.094
선수경력	.055	.030
R <sup>2</sup> (adj R <sup>2</sup> )	.488(.482)	.504(.487)

\*  $p < .05$ , \*\*\*  $p < .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2)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표 23>은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몸관리( $\beta = .189^{***}$ ), 대인관리( $\beta = .411^{***}$ )는 팀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 = .017$ ), 훈련관리( $\beta = .037$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델1과 마찬가지로 몸관리( $\beta = .203^{***}$ ), 대인관리( $\beta = .394^{***}$ )는 팀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 = -.023$ ), 훈련관리( $\beta = .036$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38.4%( $R^2 = .384$ , adj  $R^2 = .377$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41.0%( $R^2 = .410$ , adj  $R^2 = .391$ )로 나타났다.

표 23.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1.286***	.195	1.347***	.219
	정신관리	.017	.047	-.023	.049
	몸관리	.189***	.052	.203***	.053
	대인관리	.411***	.043	.406***	.042
통제	훈련관리	.037	.048	.036	.048
	성별(여=1)			-.022	.070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078	.065
	프로팀	.081	.077
	포지션(준거=공격수)	.	.
변수	미드필더	-.139	.079
	수비수	-.225**	.081
	골키퍼	-.025	.100
	선수경력	.047	.032
	R <sup>2</sup> (adj R <sup>2</sup> )	.384(.377)	.410(.391)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3)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

<표 24>은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몸관리( $\beta=.358^{***}$ ), 대인관리( $\beta=.227^{***}$ )는 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011$ ), 훈련관리( $\beta=.104$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모델1과 마찬가지로 몸관리( $\beta=.355^{***}$ ), 대인관리( $\beta=.217^{***}$ )는 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032$ ), 훈련관리( $\beta=.096$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23.4%( $R^2=.234$ , adj  $R^2=.225$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26.2%( $R^2=.262$ , adj  $R^2=.238$ )로 나타났다.

표 24.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운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상수	1.046***	.270	1.073***	.304
독립 변수	정신관리	.011	.064	-.032	.067
	몸관리	.358***	.072	.355***	.073
	대인관리	.227***	.059	.217***	.059
	훈련관리	.104	.067	.096	.066

	성별(여=1)	-.086	.096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126	.090
	프로팀	.141	.106
통제	포지션(준거=공격수)	.	.
변수	미드필더	-.105	.110
	수비수	-.102	.112
	골키퍼	.063	.139
	선수경력	.073	.045
	R <sup>2</sup> (adj R <sup>2</sup> )	.234(.225)	.262(.238)

\*\*\*  $p < .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4)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

<표 25>은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신관리( $\beta = .172^{**}$ ), 몸관리( $\beta = .354^{***}$ ), 훈련관리( $\beta = .116^*$ )는 상대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대인관리( $\beta = .046$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신관리( $\beta = .186^{**}$ ), 몸관리( $\beta = .328^{***}$ )는 상대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대인관리( $\beta = .037$ ), 훈련관리( $\beta = .107$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27.9%( $R^2 = .279$ , adj  $R^2 = .271$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30.3%( $R^2 = .303$ , adj  $R^2 = .280$ )로 나타났다.

표 25. 자기관리전략이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상대분석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상수	1.302***	.228	1.358***	.257
정신관리	.172**	.054	.186**	.057
몸관리	.354***	.061	.328***	.062

	대인관리	.046	.050	.037	.050
	훈련관리	.116*	.056	.107	.056
	성별(여=1)			-.189*	.082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086	.077
	프로팀			-.016	.090
통제	포지션(준거=공격수)			.	.
변수	미드필더			.048	.093
	수비수			.163	.095
	골키퍼			.045	.117
	선수경력			.001	.038
	R <sup>2</sup> (adj R <sup>2</sup> )	.279(.271)		.303(.280)	

\* p<.01, \*\* p<.01,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5)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 부족에 미치는 영향

<표 26>은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웍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신관리( $\beta=.234^{***}$ )는 팀웍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몸관리( $\beta=.098$ ), 대인 관리( $\beta=.080$ ), 훈련관리( $\beta=.083$ )은 팀웍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정신관리( $\beta=.184^{**}$ )는 팀웍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몸관리( $\beta=.119$ ), 대인 관리( $\beta=.077$ ), 훈련관리( $\beta=.078$ )은 팀웍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12.3%( $R^2=.123$ , adj  $R^2=.113$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16.6%( $R^2=.166$ , adj  $R^2=.138$ )로 나타났다.

표 26.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팀워크 부족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1.631***	.273	1.535***	.305
	정신관리	.234***	.065	.184**	.068
	몸관리	.098	.073	.119	.073
	대인관리	.080	.060	.077	.059
통제 변수	훈련관리	.083	.067	.078	.067
	성별(여=1)			-.019	.097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035	.091
포지션(준거=공격수)	프로팀			-.014	.107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18	.110
	수비수			-.027	.113
선수경력	골키퍼			.333*	.139
	선수경력			.071	.045
	R <sup>2</sup> (adj R <sup>2</sup> )		.123(.113)		.166(.138)

\* p<.01, \*\* p<.01,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6)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표 27>은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인관리( $\beta=.459***$ )는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086$ ), 몸관리( $\beta=-.041$ ), 훈련관리( $\beta=.132$ )은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대인관리( $\beta=.459***$ )는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121$ ), 몸관리( $\beta=-.041$ ), 훈련관리( $\beta=.123$ )은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21.2%(R<sup>2</sup>=.212, adj R<sup>2</sup>=.203)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22.3%(R<sup>2</sup>=.223, adj R<sup>2</sup>=.198)로 나타났다.

표 27.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변수	상수	1.658***	.279	1.678***	.318
	정신관리	-.086	.067	-.121	.070
	몸관리	-.041	.075	-.041	.076
	대인관리	.459***	.061	.459***	.062
통제변수	훈련관리	.132	.069	.123	.070
	성별(여=1)			-.019	.101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026	.095
수	프로팀			.009	.111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64	.115
	수비수			-.011	.117
수	골키퍼			-.025	.145
	선수경력			.069	.047
	R <sup>2</sup> (adj R <sup>2</sup> )		.212(.203)		.166(.138)

\*  $p<.01$ ,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7)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

<표 28>은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인관리( $\beta=.469***$ )는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146$ ), 몸관리( $\beta=-.190$ ), 훈련관리( $\beta=-.062$ )는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모델1과 마찬가지로 대인관리( $\beta=.482***$ )는 정신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085$ ), 몸관리( $\beta=-.163$ ), 훈련관리( $\beta=.057$ )는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11.8%(R<sup>2</sup>=.118, adj R<sup>2</sup>=.179)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23.2%(R<sup>2</sup>=.232, adj R<sup>2</sup>=.207)로 나타났다.

표 28.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컨디션 난조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1.492***	.310	1.165***	.346
	정신관리	.146	.073	.085	.076
	몸관리	-.190	.082	-.163	.082
	대인관리	.469***	.067	.482***	.067
통제 변수	훈련관리	.062	.076	.057	.075
	성별(여=1)			.166	.109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168	.102
	프로팀			.005	.120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21	.124
	수비수			.038	.127
	골키퍼			.067	.156
	선수경력			.153**	.051
	R <sup>2</sup> (adj R <sup>2</sup> )		.118(.179)		.232(.207)

\*\*  $p<.01$ ,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8)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

<표 29>은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신관리( $\beta=.168^*$ ) 대인관리( $\beta=.325***$ )는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몸관리( $\beta=-.005$ ), 훈련관리( $\beta=.034$ )는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대인관리( $\beta=.334***$ )는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관리( $\beta=.142$ ), 몸관리( $\beta=-.003$ ), 훈련관리( $\beta=.033$ )는 자만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11.7%( $R^2=.117$ , adj  $R^2=.106$ )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13.3%( $R^2=.133$ , adj  $R^2=.104$ )로 나타났다.

표 29. 자기관리 전략이 패배귀인의 하위요인인 자만심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1.582***	.340	1.601***	.386
	정신관리	.168*	.081	.142	.086
	몸관리	-.005	.091	-.003	.093
	대인관리	.325***	.075	.334***	.076
통제 변수	훈련관리	.034	.086	.033	.086
	성별(여=1)			.026	.122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180	.115
	프로팀			.020	.135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72	.140
	수비수			.095	.143
	골키퍼			.292	.176
	선수경력			-.003	.057
	R <sup>2</sup> (adj R <sup>2</sup> )	.117(.106)		.133(.104)	

\*\*\*  $p<.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9)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

<표 30>은 자기관리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multiple regression) 결과이다.

모델1은 다른 설명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신관리 ( $\beta=.163^*$ )는 심리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몸관리( $\beta=.141$ ), 대인 관리( $\beta=.071$ ), 훈련관리( $\beta=.128$ )는 심리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2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이며, 정신관리( $\beta=.138$ ), 몸관리( $\beta=.134$ ), 대인관리( $\beta=.061$ ), 훈련관리( $\beta=.123$ )는 컨디션 난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모델1의 설명력은 10.7%(R<sup>2</sup>=.107, adj R<sup>2</sup>=.096)이며, 모델2의 설명력은 12.7%(R<sup>2</sup>=.127, adj R<sup>2</sup>=.098)로 나타났다.

표 30.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부담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비표준화 $\beta$	S · E	비표준화 $\beta$	S · E
독립 변수	상수	1.760***	.292	1.693***	.331
	정신관리	.163*	.069	.138	.073
	몸관리	.141	.078	.134	.080
	대인관리	.071	.064	.061	.064
통제 변수	훈련관리	.128	.072	.123	.072
	성별(여=1)			-.058	.105
	소속(준거=고등팀)			.	.
	대학팀			.108	.099
	프로팀			.106	.116
	포지션(준거=공격수)			.	.
	미드필더			.009	.119
	수비수			.022	.122
	골키퍼			.172	.151
	선수경력			.055	.049
	R <sup>2</sup> (adj R <sup>2</sup> )		.107(.096)		.127(.098)

\*  $p < .05$ , \*\*\*  $p < .001$

주) 소속 및 포지션은 더미(dummy) 변수화 하였음

## 2. 논 의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전략, 스포츠 귀인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 분석결과, 과제성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자아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수진(2011)은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서는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김윤기(2013)는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요인에서 과제지향성을 분석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웅(2011)은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학급 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과 자아성향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축구선수가 중학교 축구선보다 과제성향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자아성향도 고등학교 축구선수가 중학교 축구선수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철(2011)은 복싱선수를 대상으로 소속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김병훈(2013)은 대학운동선수의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지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전략 차이분석 결과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정신관리, 몸관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2008)는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성별과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능력 하위요인인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 요인에서 대학부, 일반부는 고등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영웅(2011)은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급에 따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대인관리와 훈련관리가 학교급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축구선수가 중학교 축구선수보다 대인관리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훈련관리 역시 고등학교 축구선수가 중학교 축구선수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김재철(2011)은 복싱선수를 대상으로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인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경수(2011)는 씨름선수를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에서는 정신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에서는 정신관리와 훈련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신관리에서는 실업팀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관리에서는 대학교와 실업팀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셋째, 성별, 소속에 따른 성공귀인 차이분석 결과 정신력, 팀웍, 운, 상대분석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지션에 따른 정신력, 팀웍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경력에 따른 정신력, 운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수(2001)는 사격선수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패귀인의 차이에서는 운 요인에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재근(2008)은 육상선수의 특성별로 성별, 연령, 주종목, 대표 경험유무 및 입상경험여부에 따른 성공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노력, 팀 분위기, 운, 지도력, 컨디션, 상대분석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분석 결과 정신력 저하, 심리적 부담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분석 결과 심리부담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지션, 선수경력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검증 결과, 팀워크 부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근(2008)은 육상선수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실패귀인을 분석한 결과, 팀 분위기 침체는 연령과 주종목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컨디션 난조는 대표경험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신력 저하는 주 종목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담감은 종목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민(2012)은 학생 운동선수의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실패귀인에 대한 분석결과, 심리적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 2)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첫째, 성취목표성향이 성공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 요인인 과제성향은 정신력, 팀워크, 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은 상대분석, 팀워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주(2006)는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 및 경쟁불안이 성공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 개인종목 선수의 경우 정신력, 컨디션, 팀워크과 지도력 성공귀인은 성취목표성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대인종목 선수의 경우 정신력 귀인, 컨디션 귀인, 팀워크, 지도력 성공귀인은 성취목표성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자 개인종목 선수의 경우, 팀워크은 성취목표성향과 경쟁상태 불안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종목 선수의 경우 정신력, 컨디션, 팀워크, 지도력, 운 성공귀인은 과제지향적 성취목표성향과 상태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노상진(2011)은 스포츠 클럽활동을 참여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신체활동 성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숙달접근, 수행접근, 수행회피에서 동료호흡, 능력요인, 행운요인, 노력, 교사지도, 과제난이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이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은 자만심, 심리적 부담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주(2006)는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 및 경쟁불안이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남자 개인종목 선수의 경우 컨디션 난조 실패귀인은 성취목표성향이 경쟁상태 불안의 영향력 보다 높은 것으로, 자만심 실패귀인에서는 성취목표성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종목 선수의 경우 팀웍부족과 자만심은 성취목표성향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자 개인종목 선수의 경우 심리적 부담감은 경쟁상태 불안, 성취목표성향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인종목 선수의 경우 팀웍부족과 자만심 실패귀인은 경쟁상태 불안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신력저하, 컨디션난조, 심리적 부담 실패귀인은 경쟁상태 불안과 성취목표성향 모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 3)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첫째,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전략의 하위요인인 정신관리, 몸관리는 정신력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관리, 대인관리는 팀워크, 운동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관리, 몸관리, 훈련관리는 상대분석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중(2009)은 중, 고등학교 남자 축구선수들의 자기관리 유형이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관리 유형이 정신력 특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각성조절, 집중력 조절, 시각 및 이미지, 긍정적 에너지, 태도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규(2012)는 중, 고 복싱선수를 대상으로 자기관리 행동이 스포츠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행동이 스포츠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분투노력, 불굴의 투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김주연(2012)는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인 신체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가 성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정신력, 지도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인 정신관리는 팀워크 부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대인관리는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관리, 대인관리는 자만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관리는 심리적 부담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연(2012)는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담감, 정신력 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관리는 스스로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운동선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양식으로서, 자기관리는 개인 내적, 외적, 환경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주제이며, 심리적 행동전략의 하나로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의 승패 및 선수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밀접한 연관성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축구선수들의 몸관리, 정신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등의 자기 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준비의 긍정적 에너지 요인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태도조절은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모범적인 선수의 태도는 긍정적인 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팀웍,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조성되는 것은 팀웍을 중요시 하는 축구경기에서 성공적인 경기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이 연구는 남, 여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육학, 사회학, 심리학 연구영역에서 이루어진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 및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패배귀인)의 인과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표본의 추출절차는 대한축구연맹(KFA) 홈페이지(<http://www.kfa.or.kr>)에 등록된 팀을 기준으로 경기지역, 서울지역, 호남지역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 일련의 번호를 부여한 뒤 난수표를 이용하여 경기지역, 서울지역, 호남 지역에 위치한 고등부(경기지역 T고등학교, S고등학교, Y고등학교 3개교, 서울지역 D고등학교, S고등학교, K고등학교 3개교, 호남지역 K고등학교, S고등학교, Y고등학교(여자팀) 3개교) 총 9개팀으로 구성, 대학부(경기지역 S대학교, Y대학교(여자팀) 2개교, 서울지역 K대학교, S대학교 2개교, 광주지역 H대학교, C대학교(여자팀) 2개교) 총 6개팀 구성, 프로팀(경기지역 수원 FC 축구단, 성남 일화 축구단, 안양 FC 축구단 3개팀, 호남 지역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광주 FC 축구단 2개팀) 총 5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남성 300명, 여성 100명을 중심으로 총400명을 표집(sampling)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이중응답, 이상치 자료 54명의 사례수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남성 270명, 여성 76명 총 346명의 사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회수한 다음 분석 가능한 유효 표본만을 대상으로 SPSS 19.0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기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단순상관관계분석,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전략, 스포츠 귀인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차이 분석결과 과제성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자아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전략 차이분석 결과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정신관리, 몸관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소속에 따른 성공귀인 차이분석 결과 정신력, 팀웍, 운, 상대분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지션에 따른 정신력, 팀웍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경력에 따른 정신력, 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분석 결과 정신력 저하, 심리적 부담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분석 결과 심리적 부담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지션, 선수경력에 따른 실패귀인 차이검증 결과, 팀웍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첫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은 정신력 요인, 팀웍 요인, 운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은 상대분석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은 팀웍부족 요인, 정신력 저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은 자만심 요인, 심리적 부담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첫째, 자기관리 전략이 성공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인 정신관리, 몸관리는 정신력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관리, 대인관리는 팀웍, 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관리, 몸관리, 훈련관리는 상대분석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관리 전략이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인 정신관리는 팀웍부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대인관리는 정신력 저하, 컨디션 난조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관리, 대인관리는 자만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관리는 심리적 부담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이 연구는 한국의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성공귀인, 실패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하고자 하는 목적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에서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연구에서는 한국 축구선수의 심리적, 체력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을 세분화하여 스포츠귀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스포츠귀인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인에 지도자 유형과 관련하여 선수관의 관계를 설정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축구 선수의 최고의 수행결과를 위하여 성공적인 경기결과와 패배적인 경기결과에 대한 원인을 축구선수들의 심리적 내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축구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면접법과 관찰법의 질적연구 방법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구본칠, 김찬주(2005). 고등학교 선수의 성격특성과 귀인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6호. pp. 51-61.
- 곽한병, 송민규(2010). 한국 태권도 선수의 자기관리 전략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pp. 3-13.
- 김경수(2011). 씨름 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성취목표지향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식 (2010). 스포츠 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레인보우북스.
- 김병준(2003).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행동의 측정. *체육과학연구*, 제14호, 제4호. pp. 125-140.
- 김병훈(2013). 대학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믿음이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준, 유진, 허정훈(2001). 대학운동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 평소연습과 시합 상황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pp. 187-198.
- 김성은(2005). 여자 프로농구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내적동기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옥, 정기수(1997). 무용학습과 인지학습 성취에 대한 귀인적 사고.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8(1). pp. 87-100.
- 김성옥, 김지미(1997). 개인경기와 단체경기의 승패귀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2), pp. 81-95.
- 김성옥(1998). *스포츠심리학*. 서울: 태근문화사
- 김성옥(2001). 자궁심과 스포츠 및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pp. 141-159.
- 김성옥(2003). 귀인 스포츠 행동. *스포츠 행동의 심리학적 기초*. 태근문화사.
- 김성준(2012). 기계체조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쉽과 성취목표성향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배, 윤영길(2003). 한국형 스포츠 귀인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 14(1), pp. 27-49.
- 김윤태(1999).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경쟁불안, 자기효능감 및 볼링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기(2013). 배드민턴 동호인의 성취목표성향이 운동 몰입과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옹수(2001). 사격선수의 경기성패에 대한 귀인특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1998). 무용수의 공연, 성패지각과 공연결과 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2012).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 전략과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2004).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지각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형태와 정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pp. 1125-1136.
- 김종민(2008). 축구선수의 성별과 소속 및 경기력에 따른 자기관리 능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곤(2012). 2010 남아공 월드컵 경기내용 분석,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철(2011). 복싱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주(2005). 운동선수의 성격과 성취목표성향 및 경쟁불안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찬주(2006). 종목별 운동선수의 성격과 성취목표성향 및 경쟁불안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 통권95호, pp. 511-520.
- 김한별(2006). 골프선수들의 스포츠자신감이 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상진(2011). 중학생의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한 2×2 성취목표성향 및 내적동기가 신체활동 성취귀인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진(2007). 국가대표 사격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철우(2009). 고교야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내적동기와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훈(2004). 일반 골퍼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참여 동기 및 몰입과 귀인유형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진희(2010). 대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트레스 대처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사회 체육학회지, 제40권, 제2호, pp. 875-885.
- 변영신(1993). 운동경쟁상황에서의 동기적 분위기가 성취목표지향성 및 지각된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주미(2006). 에어로빅체조 선수의 스포츠자신감이 귀인유형, 지속과 탈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주미, 여인성(2010). 에어로빅체조선수의 스포츠자신감이 귀인유형, 지속과 탈퇴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9권 제2호, pp. 787-800.
- 안희구(2003). 고교 조정선수들의 성공과 실패, 목표성향이 귀인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42(5), pp. 161-170.
- 오정묵(2008). 음악줄넘기 운동이 중학생들의 성취목표성향 및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 진(1996).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기술 검사지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35(3). pp. 107-124.
- 유 진, 허정훈(2001). 체육성취목표지향성과 동기분위기가 지각이 내적동기와 운동 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pp. 109-123.
- 유 진, 허정훈(2002). 스포츠심리학: 스포츠 심리기술 질문지 개발의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제4권, 제3호, pp. 41-40.
- 유 진, 허정훈(2004). 국가대표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제15권, 제3호, pp. 27-52.
- 유 진(2002). 한국스포츠 심리측정의 내용분석과 미래방향. 한국체육학회지, 39(2), pp. 246-260.

- 윤영길(2004). 축구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의 위계적 중요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인상(2011). 스포츠 스타의 평판이 대중의 귀인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원중(2009). 중, 고등학교 남자 축구선수들의 자기관리 유형에 따른 정신력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은(2000).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가 스포츠 자신감과 귀인형태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성호(2003). 우수 양궁선수의 시합집중을 위한 인지행동 전략.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pp. 51-68.
- 이경원(2006). 실업 배드민턴 선수의 경기승패 요인이 귀인형태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규(2012). 중, 고 복싱선수의 자기관리행동이 스포츠 정신력과 체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민(2012). 학생선수의 운동경험특성과 스포츠지향, 운동선수 정체성 및 성패귀인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기(2001). 펜싱선수들의 스포츠자신감 수준이 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왕성(2007). 고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훈(2007). 한국 태권도 지도자의 귀인 측정도구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제홍, 임종은(2001). 테니스선수들의 경쟁지향과 내적동기, 스포츠자신감 및 귀인형태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 639-654.
- 임용혁(2006).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경기력 분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종은(2002).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가 스포츠 자신감 및 귀인형태에 미치는

- 효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주연, 김윤태(1998).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내적동기. 대전대학교 기초 과학연구소 논문집, 자연과학 제9권 2호, pp.95-108.
- 성장훈(1995). 성취목표성향과 목표설정 유형이 동기적 행동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정득(2001). 골프이론과 정신훈련. 부산 : 세종출판사, pp. 146.
- 송민규(2011). 한국 태권도 선수의 성패귀인 측정도구 개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근(2008). 고교 육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귀인유형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용각(1997). 여가운동참가자의 스포츠 참여 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스포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2012). 축구지도자의 멘토링 유형과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스포츠 자신감 및 자기관리 행동의 인과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청희, 김병준(1999). 스포츠심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금강.
- 정찬영(2012). 중고등학교 검도선수들의 시합성공과 패배귀인 유형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길영, 전기영(2003). 중, 고등학교 유도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귀인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4권 제4호. pp. 653-662.
- 최무현, 김신호(2009). 고등부 유도선수의 일반적 성격특성이 성패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20권, 제2호, pp. 3-11.
- 최영옥(1988). 결과정위, 특성스포츠자신감, 상태스포츠 자신감이 경기결과와 귀인형 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26, pp. 145-149.
- 최완우(2012). 골프 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인(2000). 태권도 경기에서의 승패와 성별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수진(2011).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성일(2004). 축구 경기력의 기술요인 구조분석.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웅(2011).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자신감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훈, 김병준, 유 진(2001).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 평소 연습과 시합 상황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pp. 187-198.
- 허정훈(2002). 운동선수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구조적 타당화와 인과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훈(2004). 스포츠 귀인측정 : 방법론적 쟁점과 미래연구 방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5호, pp. 589-560.
- 허 준(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반정식모형-기초편. 서울: 한나래 출판사.
- 현숙희(2006). 유도선수들의 심리적 요인과 귀인유형과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재표, 차정훈, 전승훈(2005). 유도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 수준이 귀인형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2호, pp. 597-605.
- 홍재표(2003). 유도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 수준이 귀인형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준팔(2001). 축구경기에서의 성별, 학업성적 및 승패가 귀인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스포츠심리학회(1998). 스포츠 심리학. 서울 : 태근출판사
- 스포츠 심리학 핸드북(2005). 한국스포츠 심리학회편 pp. 170-178.
- Ames, C.(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 instruction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pp. 478-487.
- Ames, C.(1987). *Competitive, cooperative &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 A motivational analysis*. In R. Ames& C.Ames(Eds). NY: Academic Press
- Ames, C.(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 Educational Psychology*, 84, pp. 261–271.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 room :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70.
- Biddle, S. J. H. & Hill, A. B.(1988).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s emotions in a laboratory-based sporting contest, *Journal of Sports Sciences*, 10, pp. 65–75.
- Biddle, S. J. H. & Hill, A. B.(1992). Attributions for objective outcome and subjective appraisal of performance: their relationship with emotional reactions in spor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pp. 215–226.
- Brawley, L. R., & Roberts, G. C.(1984). Attributions in sport: Research foundation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John M. Silva & Weinber(Eds.).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Burton, D.(1993). *Goal setting in sport*. In R N. Singer, M, Murphy, & L K. Tennant(Eds.), *Handbook on research in sport psychology*(pp. 467–481). N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arron, A.V.(1980). *Social Psychology of Sport*. Ithaca, N.Y.: Mouvement Publications.
- Cyert, R, & March, J. G.(198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ratty, B. J.(1967). *Psychology in contemporary sport: Guidelines for coaches and athlet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rews, D.(1993). Self-regulation strategies in sport and exercise. In R. N. Singer. M. Murphy. & L. K. Tinnant (Eds), *Handbook on research in sport psychology*, pp.557–568.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Duda, J. L.(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and ego orientation the perceived purpose of sport among high school athletic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318–335.

- Duda, J. L.(1993). A goal perspective theory of meaning and motivation in sport. In the 8th World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proceeding, Lisborn, Portugal, 65–81.
- Duda, J. L. & Nicholls, J. G.(1989).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 Duda, J. L. & Nicholls, J. G.(1992).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Unpublished manuscript.
- Duda, J. L., Chi, I., & Newton, M.(199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TEOSQ.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the Psychology of Sport & Physical Activity, University of Houston, TX.
- Dweck, C. S. & Reppucci N. D.(1973). Learned helplessness and reinforcement responsibility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pp. 109–116.
- Dweck, C. S.(1975).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attributions i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pp. 674–685.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10), pp. 1040–1048. Edwardsville, IL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Elliot, A. J., & Harackiewicz, J. M.(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pp. 461–475.
- Elliot, A. J., & Dweck, C. S.(1986). Goal;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 5–12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1981). Socia IO 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Hall.
- Kanfer, F. H.(1970). Self Regulation: Research, issues, and speculation. In C.

- Kanfer, F. H., & Karoly, P.(1972). Self-control : A behavioristic excursion into the lion's den. *Behavior Therapy*, 3, pp. 398-416.
- Likert, R. (1932).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140, 1-55.
- Locke, E. A.(1981). Latham versus Komaki: tale of two paradigm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16-23.
- Locke, E. A.(1982). Relation of goal level to performance with a sport work period a n d multiple goal liv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pp. 512-514.
- Locke, E. A., Shaw, K. N., Sarri, L. M., & Latham, G. P.(1981).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90, pp. 125-152.
- Loehr, J.(1982). Athletic Excellence: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Forum Publishing Company, Denver.
- Heider, F.(1944). Scoial perceptions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ogical Review*, 51, pp. 358-374.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stns. N.Y.: *John Wiley & Academic press*, pp. 115-144.
- Hughes, M. & Franks, I. M.(2004). 「Notational Analysis of Sports,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David Levinc, Lincoln(ed.), N. 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anfer, F. H. (1970). Self Regulation: Research, issues, and speculation. In C. Neckinger and H, L. Michael(Eds), Behavior modification in elliptical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Kanfer, F. H.(1971). The maintenance pfbehaviorby self-generated stimuli and foinfor cement. In A. JacobsandL. B. Sachs(Eds). Thepsychology ofpresents. New York; AcademicPress.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N. Y.,: Academic press, pp. 219–266.
- Jones, R. T., Nelson, R. E., & Kazdin, A. E.(1977). The role of external variables in self reinforcement: A review, Behavior Modification, 1, pp. 147–178.
- Nicholls, J. G.(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pp. 328–346.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Nicholls, J. G.(1992).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n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G. Roberts(Ed.). IL: Human Kinetics, pp. 31–56.
- Martens, R. (1987). Coach guide to sportpsycholog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McAuley, E. & Duncan, T. E .& Russell, D.(1992). the revised causal dimension scale(CDS II). University of Oregon.
- McAuley, E. Russell, D., & Gross, J. B. (1983). Affective consequences of winning and losing: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5, pp. 278–287.
- Maehr, M. L., & Nicholls, J. L.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 A s econd look. In N. Warren(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McAuley, E. & Duncan, T. E.(1989). Causal attributin and affective reactions to disconfirming outcomes in motor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pp. 187–200.
- Penrod, S.(1984).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Rothorst, s.(1992). Kognitionen and Emotionen in sportlichen Leistungssituationen Eine

- Überprüfung einer attributionsalen Theorie von Emotionen. Kolen, Germany.
- Roberts, G. C.(1982). *Motivation in sport &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 conceptual convergence*. In G. C. Roberts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p. 3–30.
- Rottet, J. B.(1954).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pp. 80,1–28.
- Scanlan, T. K. & Ragan, J. T.(1978). Achievement motivation and competition; Perceptions and response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10, pp. 276–281.
- Sonstroem, R. J. (1984). Exercise and self-esteem,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 12, pp. 123–156.
- Sonstroem, R. J. & Morgan, W. P. (1989). Exercise and self-esteem; Rationale and model.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performances of the elderly: comments from an attributional theoris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5, pp. 127–130.
- Simon, H. A. (1964). On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go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9, 1–22.
- Steers, R. M. & Porter, S. W.(1974). The role of task goal attributes in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81, 434–452.
- Thoresen, C. E., & Mahoney, M. J.(1974). Behavioral self control.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Vealey, R. S.(1988).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pp. 221–246.
- Weiner, B. (1972). Theories of motivation : From Mechanism to cognition. Chicago III:Rand McNally.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ciew, 92, 4, pp. 548–573.*

Weiner, B.(1988). An attributon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hy. Springer–Verlag NY: Prentice–Hall.

Weiner, B. Frieze, I. H., Kulka, A., Reed, Rest, L. & Rosenbaum, R. M. (1971). Perceiving the causes of succes and failure.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95–120.

Weiner, B., Russell, D. & Lerman. D. (1978). Affective consequences of causal ascriptions. In J. H. Harvey, W. Ickes & R. F. Kidd(Eds). New directians in attnbution research; vol 2. pp. 59–90.

Weinberg, R. S.(1992). Goal setting and motor performance: A review and critique. In G. C. Rob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pp. 177–197). Champaign, IL: Human Kinetics.

Weinberg, R. S., & Gould, D.(1995).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g*. *Champaign, II: Human Kinetice.*

Yukelson, D., Weinberg, R. S., West, S., & Jackson, A. (1981). Attributions and performance; An empircal test of kukla's theor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9. pp. 38–46.

## <부 록>

### 설 문 지

본 연구는 한국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스포츠 귀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사용할 것이며, 귀하의 답변은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각 문항에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귀하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의 기초가 되오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남 성<      >    ②여 성<      >
소속	①고등부<      >    ②대학부<      >    ③프로팀<      >
포지션	①공격수<      >    ②미드필더 <      > ③수비수<      >    ④골키퍼 <      >
선수 경력	①5년 미만<      >                  ②6년이상 - 10년미만 <      > ③11년이상 - 15년미만 <      >    ④16년이상 - 20년미만 <      >

1. 다음은 귀하의 성취목표성향(TEOSQ)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어나 운동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동료보다 더 잘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나 만큼 못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선수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땀 흘려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 혼자서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귀하의 자기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족한 점을 개인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규칙적인 훈련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훈련일지를 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평소 몸을 아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개인훈련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평소 체중을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선·후배에게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수면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윗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시합 전에 음식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잠을 충분히 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항상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시합이 다가오면 행동을 자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체력훈련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의 성공귀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대방을 잘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승부욕이 강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이 강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패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자기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코치 선생님이 잘 지도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도자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도자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시합 날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대진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팀워크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동료들과 하나 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단합을 잘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꾸준히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시합 날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평소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시합 내내 집중을 잘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몸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귀하의 실패原因之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너무 자만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방심하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상대방을 얕보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방심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수들과의 마음이 안 맞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팀웍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서로가 격려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단합이 안됐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수들이 개인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팀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나친 긴장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상대에게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담을 갖고 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시합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정신적, 육체적,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경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